

소학생

國立圖書館
藏書

甲

★ 61호 ★



아협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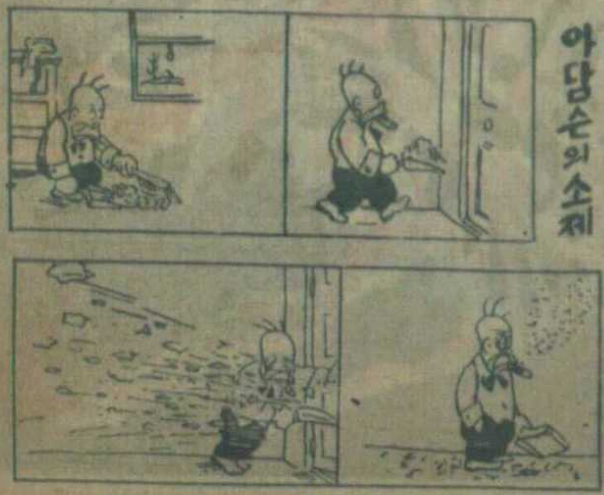
353

10월치

목동이

저 간밤에 많은 비가 내렸어. 그지 밤 3시에 어는 물이 들었습니다.

이영준 그림



소학생

1948년 10월 1일 발행

61호 10월치

차례

동요·양... 전 오(5)
 동요·기 판 잇... 박은중(22)
 동요·코 알 이... 박병업(35)
 동화·은쟁이 전 지... 김요설(26)
 소설·봄 피 노래... 정인태(12)
 소설·소년삼국지... 박태원(32)

★ 거짓말 없이하자... 오기영(26)
 ★ 소년 과학사... 홍이섭(23)
 ★ 태풍을 막아... 박명준(4)
 ★ 동요 맛보기... 박영중(6)
 유대하야밤이야기... 정갑(19)
 역사 이야기·명정승 왕의문(22)

○ 세아보... 윤석중·윤극영(2)
 ○ 차차차차·즐거기판... (2)
 ○ 세계 각국의 집... (30)
 ○ 세 소 식... (31)
 ○ 바위속에있는걸... (32)
 ○ 버림 받은 밭... (17)
 ○ 만년필 쓰는 법... (33)
 조선 공부(15)·그림 속담(18)

그림애기·서동재... 김용환(28)
 육십 많은 농부... 정국(8)
 만화·옥동이... 이영준(43)
 만화·만원 전차... 오상영(7)
 만화·과락 공부... 만복이(31)
 팔팔박사(38) 부 최최박사(41)
 오락 실(4)·소학생 구라부(42)
 만물고나시... (42)

★ 그림 그리실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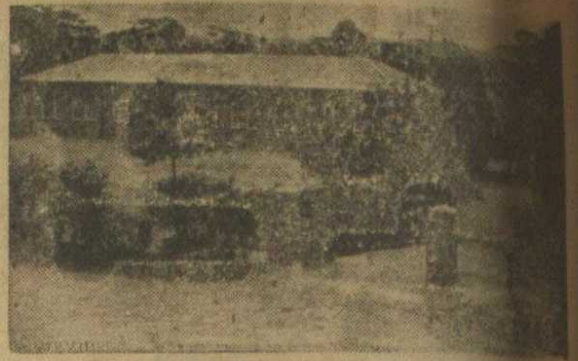
정현웅·김용환·김기창
 김의환·조병덕·최수철
 결장·박태원



그림·김기창

집 없는 어린이의 낙원 태릉 국립 육아원을 찾아서

박 명 준



청량리 박 중량을 건너서부터는, 길 양쪽에 버드나무가 나뭇히 늘어선 깨끗한 아스팔트 길이 곧장 펼쳐 있다. 윤석중 선생님과 정순철, 한인현, 김천, 어떻게 배 선생님과 하고, 노래동무회 동무들을 태운 트럭은, 재미 있게 노래 몇 곡 부르는 사이에 이 길에서 배밭이 많은 먹골로 들어섰다.

배밭을 지나놓고 불암산 밑, 태릉(泰陵)이 바로 기차길 건너로 보이는 곳 육군사관학교 뒤에, 우리가 찾아 가는 국립 육아원이 있다.

밤송이가 벌써 커진 밤나무, 벗나무, 솔나무들이 길옆에 늘어서서, 마치 굴처럼 되어 있는 길을 들어 서면, 두 기둥에 하나씩 커다란 널판이 걸려 있는 문이 나타난다.

작은 것에는 "국립 육아원" 큰 것에는 "농공 초급 중학교" 라고 함문으로 써 있다.

트럭에서 내리자 원장 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들을 안내해 주신다.

벽돌로 지은 교사, 넓은 운동장, 배를 심은 정원, 온실, 창고, 이러한 것이 먼저 눈에 띈다. 모두가 깨끗하다. 쓰레기와 먼지 속에서

사는 서울에서 온 우리들에게는 마치 딴 세상에 온 것만 같았다.

교실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동안에, 부원장으로 계신 이달섭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신다.

이 국립 육아원은 1905년에 생긴 것이다. 이필화(李蕊和)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재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어린이를 약 80명 모아서 길렀는데, 그 이름을 "경성 고아원" 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빼앗고 나서는, 이러한 고아원까지도 강제로 빼앗아 버린 것이다.

1912년 경성 고아원의 일을 보던 이필화씨의 아드님이, 일본으로 생활을 간 사이에, 별별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조선 총독부 제생원 양육부" 로 만들어 놓았다. 이필화씨는 그 때 돈으로 몇 만원(지금 돈으로 치면 몇 천만원)이 나 되는 재산을 그대로 빼앗긴 것이다.

그 후 제생원에는 귀먹어리, 말 못하는 이, 눈먼 사람들을 위한 맹아 학교가 더 생겼고, 1938년에는 이곳 태릉 근처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46년 정월에 "국

립 육아원," 으르 되었고, 맹아 학교는 따로 독립하여 나가고, "국립 육아원" 안에 올에 세브 농공 중학교가 생긴 것이다.

이 곳에서 사는 아이들도 해방 직후에는 78 명이던 것이, 지금은 180 명으로 그 중에 여아가 30 명 있다.

이 많은 아이들을 겨우 21 명의 선생님들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어, 소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또 농사 목공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보아 주시는 것이다. 원장 이문형 선생님께서 마치 할아버지나 뉘는 듯하게 다정하신 분으로, 이러한 의지 없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에 열성을 바쳐 오신 분이라 한다.

우리들은 국립 육아원 어린이들이 다 모이는 동안을 이용해서, 잠깐 원 안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원 안이라 하여도 모두가 대평이나 되는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본 것은 학교 근처 뿐이다.

학교 교사는 시골 학교로는 모를게, 벽돌로 지은 훌륭한 집으로 교실이 셋이 있다. 일학년과 이학년이 한 반에서 배우게 되어 있으며, 육학년까지 있는 학교이다.

교사 앞에는 넓은 제일 운동장

이 있다.

중동경에서 식당으로 가는 사이에는 넓고 아름다운 성원이 있다. 철원 서원정에서 많은 벼용을 만들어서, 배와 큰 나무들을 날리다 같이 좋은 것이라 한다. 외토이 지리나는 육아원 어린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너그러울고 부끄러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계획지도 여러 가지로 생겼을 터신다오, 부원장 선생님의 말씀이다.

식당으로 갔다. 두 줄로 들어선 상 위에는 하얀 보가 덮여 있고, 지울 어느 백화점 식당에나 온 것 같이 깨끗하다. 식당 옆으로 졸업 중학생 원아의 축사가 다있고, 고실이 하나, 겨울에 더운 물을 채수하는 곳, 이발소, 식료품 상고, 선생님들 맥, 이러한 곳이 길을 사이에 두고 거리의 어떤 골목에 들어선 것 같다. 이 길도 골목 가면 커다란 못이 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논이 십정모, 밭이 사천경이 있는데, 이 논 밭에서 나는 것으로 5백 명의 어린이들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 9월부어는 농사짓는 것과, 목공 일을 주로 배우는 중학교를 새로 만들고, 나이 많은 원아들을 전국 육아원에서 모아서 중학 공부를 시켜서, 넓은 토지를 이용하여 정글지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포선에는 지금 부모 없는 고아들이 사오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육아원이 110군데에서 8천 명 밖에 돌보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아이 많은 아이들은, 한편으로 이

동 요

양

진 오

푸른 잔디 금잔디에
눈처럼 흰 양아
너는 어째서 홀로히
매 해 행 울면서
풀을 뜯느냐

작한 눈 고이 뜨고
이리 저리 거닐면서
목덜미 방울 소리
귀담아 듣느냐

여기 보다 더 좋은 곳
너는 그리워
매 해 행 우느냐

솜처럼 보드라운
네 몸을 안아주마
우지마라 양아
눈 보다도 흰 양아
(그림 · 정 현웅)



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육아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서서 교문을 나서면 조그마한 언덕이 있다. 언덕 너머로 가는 길에는 나란히 코스모스가 심어 있고, 이 길로 가면 육아원 어린이들의 집이 있다.

집에 다 못가서 언덕 위에는 병원이 있다. 바닷가나 산 속에 많이 있는 조그마한 병원 같은 것

이다. 지금 피부병으로 서른 명 가량 입원하고 있는데, 몹시 나쁜 아이는 없다 한다.

축사는 일조, 이조, 삼조의 셋으로, 집 하나에 식당 하나 방이 셋, 사감 선생님 방 하나, 이렇게 있다. 지금은 여름이라 온실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편마를 치거나 또는 마루방에다 침대를 놓고 있다.

특히 어떤 여름에는 이화여자대학에서 이영희, 오경여, 조영필 세 누님이, 40일동안이나 이곳에서 같이 살면서 보양으로도 어떤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호 속사에는 유치부가 있다. 세살 배살 먹은 어린이들이 무심히 용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는 때, 노란 머리로 하나 섞여 있었다.

삼호 속사는 여아들의 속사이다. 이곳에서 시집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방 하나를 열어 보았더니 인형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어쩔지 쓸쓸한 것 같았다. 이곳 어린이들은 자기의 것으로 가진 물건이 꼭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동무회에서 “소학생”을 선사트 갖다 주었을 때에는, 너무 기뻐서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리보고 저리보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 속사 앞에는 운동장이 또 하나가 있다. 미끄럼, 견베, 철봉 같은 것이 있고, 적 넓은 운동장이었다.

다시 교사로 돌아온 우리들은 육아원 어린이들에게 그동안 일요일마다 배운 재미 있는 노래들을 많이 들려 주고, 또 “소학생”에 실린 「앞으로」 라는 노래와 「기차길 열」이라는 노래를, 마침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장단맞춰 함께 배웠다.

열심히 노래를 배우는 어린 동무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젖을 모르고 자라나는 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노래를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끝)

동요 맛보기

(2) 박 영 조

ㄴ

이 번은 꼬꼬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 분은 학교에서 부르는 버젓한 이름 대신에, 집안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형제 가운데서 그 중 끝이라 해서 “막내” 세째라 해서 “세째” 또는 둘째처럼 단단하다 해서 “둘이” 이름이 친하면 명(命)이 길다해서 “쇠똥이” 모두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너무 귀여워서 붙인 이름들이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군(君)하고 호적(戶籍)이름을 부르면, 어쩔지 딱딱하고 서먹서먹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나 아주머니가

“세째야”

열렬히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도록 정다움을 느껴집니다.

병아리도 마찬가지이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노란 주둥이, 빨간 발의 그 귀여운 눈을 병, 아, 리, 하기에는 좀 어색하지. 그래서 꼬꼬입니다.

꼬꼬는 병아리보다 더 귀여운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뿐 아니라, 아주 제가 큰 벼슬이라도 가지었다고 버티고 뽐내는 수탉이며, 할 꼬꼬꼬꼬 모이나 주어 먹

고 알을 낳고 병아리를 깨고, 까서 기르는 부지런쟁이 일합도 모두 꼬꼬지.

꼬꼬는 그냥 수탉, 암탉보다 더 귀여운 암탉, 수탉입니다. 흰 배, 노닐 꼬꼬가 아주 재롱군입니다.

앞집 꼬꼬란 놈이 울타리 틈서리로 아슬랑아슬랑 덧둑뎛둑 우리 집으로 옵니다. “조놈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나?” 엿보니, 꼬꼬는 시침을 툭 뱉고 부엉목 정터로 휘익 돌아다, 꽃밭머리에 가더니, 셋빨간 봉숭아 꽃 한 송이를 냉큼 따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의 집으로 힘 도망치 갑니다. 조그맣고 노란 털이 보슬보슬한 궁둥이를 요리조리 빼들기리며 달아나는 꼴이란. 아, 봉숭아 꽃송이가 그중 탐이 있던 지저.

앞집에
꼬꼬는
염치도 없지

봉숭아
꽃봉지
뚝 따 가지군

울타리 밑으로
소루루 빠져

저의 집

꽃밭에
물고 가더라.

(꼬꼬, 울 부침)

가을이 되면 수북한 잠불이 열
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라
술은 드술이 맑고.....

자리 자리 잠자리
고추 잠자리

가 배를 지어 날아와서, 바람을
정밀 줄이다. 이 때면, 꼬꼬할모
중그란 꼬개를 가웃이 물고 잠자
리를 잠을향으로, 오루루 조루루
떠다니지만, 어디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쉬 잠적야 맞이져.

담 위에 잠자리
경난 친다고
병아리 머리 위로
포로로 나너
도록도록 병아리
조길 집으며
오루루 조루루
따라 다녀요.

셋발간 잠자리
담 위에 앉아
꼬리를 찢다찢다
비가 날 잡아
도록도록 병아리

술이 가며서
꼬개를 가웃가웃
할 수 없대요.

(병아리·울 부침)

병아리의 귀여운 움직임(動作)이
눈에 보입니다. 이 때서 병아리가
말을 하고, 잠자리의 생각을 우
리가 알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지. 우리가 병아리가 되고, 잠자
리가 되면 그만이지. 지금 이 글
을 쓰고 있는 책상머리 상 밖
은, 가지나무에 작은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그 가지
들이

일본 일본 굶자:

주먹만큼 굶자:

일본 일본 굶자:

의만큼 굶자.

다며, 곧 소곤거리며 있는듯 함
너다. 그 소곤거리는 작은 목소리
가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왜 그럴까.

내가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입
니다.

물 한 모금
.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 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 보고

(담·장 소천)

어려 분은 지붕과 지붕 사이,
혹은 중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좁고 적은 하늘이 아니라, 넓은
들판 위에 또는 가이 없는 바다
위에 환히 개인 한 없는 하늘
이, 한 없는대로 동, 서, 남, 북
끝없이 펼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넓기 때문에 아주 낮아
보이는 그런 하늘 밑에 서며는,
그 하늘 앞에 섰으며 울고 싶
어지지. 우리가 아무리 앓을 써
도 이적할 수 없는 그 끝 없는
길이...그 길이를 늑늑히 지닌채
할아버지처럼 병곳 웃는 듯한 너
그러운 하늘, 그 하늘 아래 빨간
벚이 풍긋한 담, 맑은 물 한
모금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
봅니다. 하늘을 쳐다 보는 뜻을
... 여러 분 생각하여 봅시다.

그러고, 무엇에 놀란 듯, 졸릴
듯한 몽그랑그 까만 눈에는, 한송
이 흰 구름이 솟음이처럼 잠겨
있을대지.

—계속—



그림 이야기

욕심 많은 농부

★톨스토이 지음 ★그림 정국



① 어느날 서울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 왔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잘 자라는 남자에게, 동생은 시골서 농사짓는 남자에게 각기 시점을 잴었습니다.

둘이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서울이 살기 좋다는 것을 자랑을 하자, 동생도 지지않고 시골 자랑을 하게 되어, 마침내 둘이는 나쁘니 좋으니 서로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동생의 남편인 파호오르는, 옆에서 혼자말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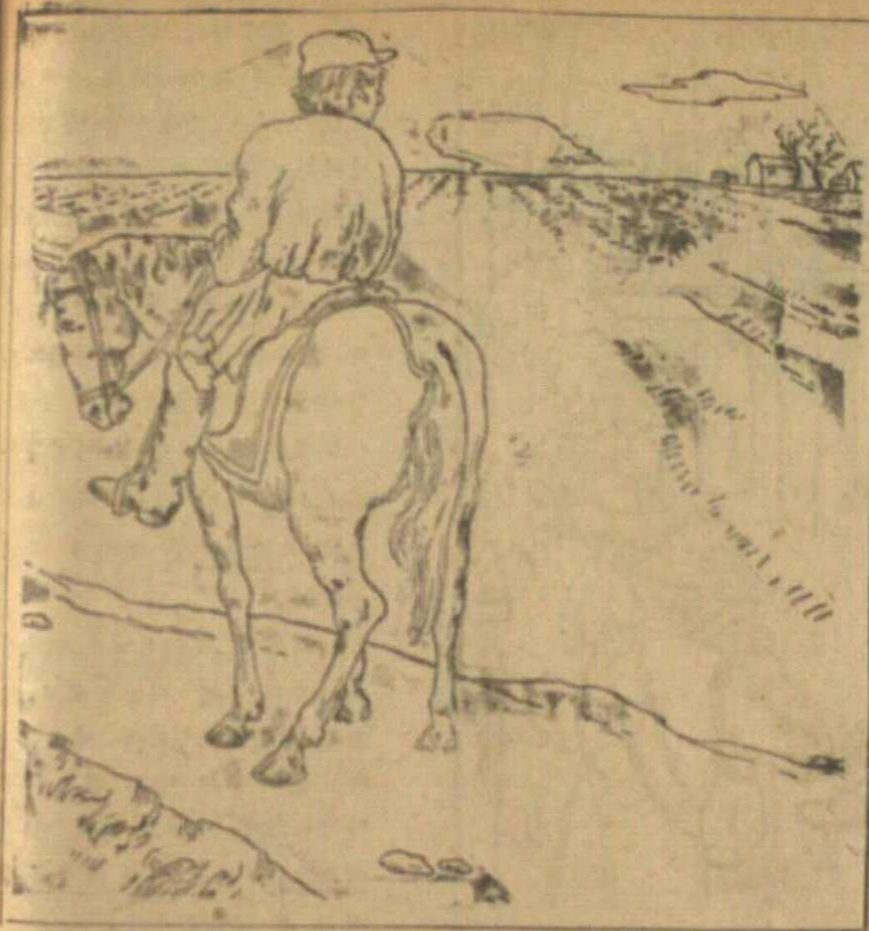
“시골서 고생되는 일은 땅이 적다는 것 뿐이지, 땅만 많아 봐라, 악마라도 무서워 하지 않을 터이니.”

②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파호오르가 자기 방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어디서인지 갑자기 키도 크고 얼굴도 무시무시하게 생긴 악마가 나타나더니, 파호오르 앞에 우뚝 가토 막아 서며,

“오냐! 알았다. 그러면 네가 달라는대로 얼마든지 땅을 줄터이니, 어디 누가 이기는가 둘이서 시합을 한 번 해 보자.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으니, 다름이 아니라, 비 신세는 아주 망해 버리고 말 것이다.”

하고 파호오르에게 일러 두고서도 어디트인지 가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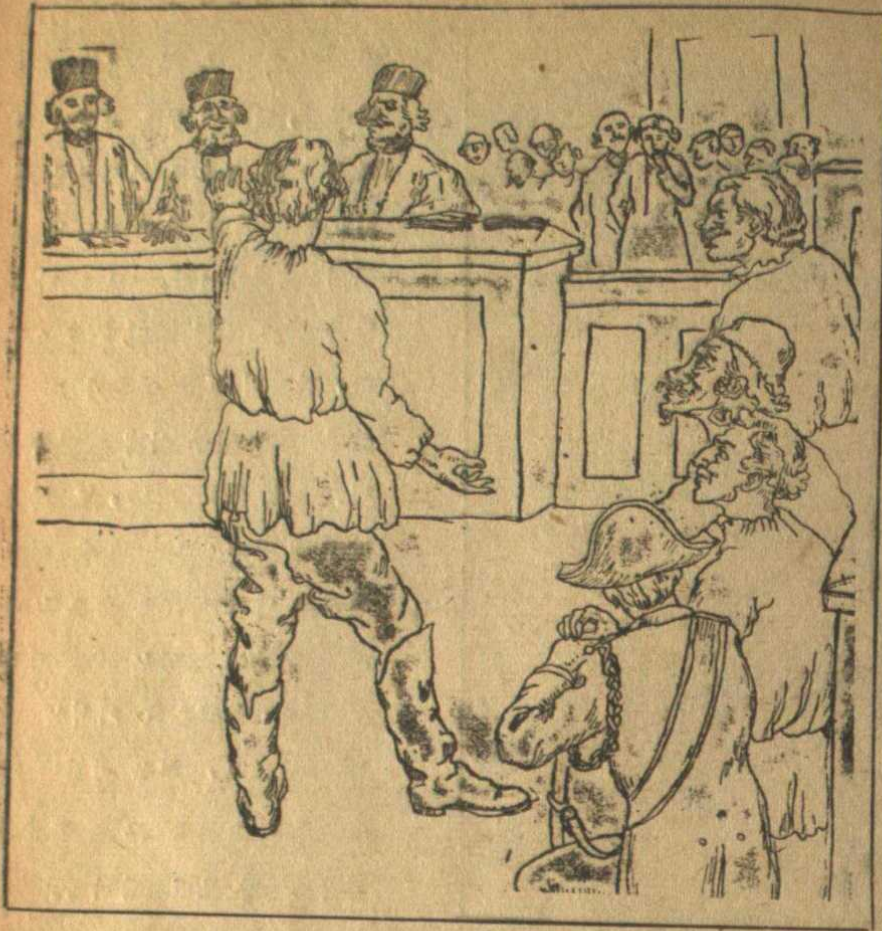


① 농부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근처에는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땅을 적게 팔고 결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땅을 사고 싶어 하던 과호오르는, 간신히 돈을 만들어 그 부잣집 땅을 전부 사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게 되자, 그 이를 알부의 과호오르는 말을 타고 밭에도 나가도 또는 논으로 가서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도 하고, 목장으로 가서는 풀도 베어보고, 그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날 그날을 행복스럽게 보내었습니다.

② 워낙 땅이 많은데다가 일도 부지런히 하였고 때문에, 과호오르는 죽은 아내의 때부터 빌었던 수 많은 빚도 한문 남기지 않고 다 갚아 버렸으며, 그뿐 아니라 근처라던 슬림살이도 남아져 갔습니다. 농부들이 이 따금씩 과호오르 땅으로 들어와서는, 물대 풀도 베어가고 나무도 베어가고 하였습니다.

결음에는 과호오르도 모르는 제하고 참아 왔으나, 한 번 두 번하여 그것이 점점 심하게 됨에, 나중에는 과호오르도 참을 수 없어서, 드디어 이 동네 사탕줄을 걸어서 재판소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⑥ 재판관이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해 본즉, 본시 동네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부주의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이 농부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화가 난 과호오르는 재판관이라도 싸움을 하고, 멸망하고도 입다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과호오르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여, 과호오르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과호오르는 이웃사촌이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려 잃어 버렸습니다. 집도 크고 땅도 많고 하지는 마는, 동네 인심을 잃게 된 과호오르는, 갑자기 이 세상이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⑥ 어느 날 과호오르가 저녁을 마친 후 자기 방에서 쉬고 있는데, 길가는 나그네가 찾아 오더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때 과호오르는 나그네의 청대로 오늘 하룻밤만 재워 주기로 하고, 밤 늦도록까지 나그네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그네의 말을 들으면, 여기서 남쪽으로 약 칠백 리쯤 떨어진 곳에 넓은 땅이 있으며, 거기에 이사 가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 앞에 땅을 공짜로 열마지기씩이나 주며, 그 뿐만 아니라 돈을 내기만 하면, 그보다도 더 좋은 상을 쓸 값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이 이야기를 들은 파호

오르는 밭이며, 땅이며, 밭, 논, 밭, 할것 없이 다 팔아 버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철벽 리나 편이걸 남쪽 땅으로 떠났습니다.

파호오르는 목적지에 와서 곧 그 동네의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섯 식구의 몫으로 땅 십마지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땅을 얻은 그는 큰 길을 짓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하여 준비를 끝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땅은 그전보다 넓은 편 아니라 적 걸기 때문에, 곡식의 수확이 그전보담 훨씬 많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② 파호오르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서 떠난의 기쁨이었음에도, 한참 동안은 일에만 열중하고 다른 생각은 안하였으나, 어느 날 보지 못한 장삿꾼이 파호오르의 집에 찾아 오더니, 여기서 서쪽으로 구백 리쯤 가면, 여기보담 더 값이 싼 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호오르는 더 많은 땅을 사고 싶은 욕심에, 그 이튿날 아침 큰 배낭을 메고, 구백 리나 멀어졌다는 그 지방으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일주일이나 걸려서 길이 가서, 과연 장삿꾼의 말대로 그러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계속)



|| 소 || 녀 || 소 || 설 ||

봄의 노래 ⑥

정 인 렵
그 립 · 김 의 환

60호까지의 대강 이야기

동호는 해방 전까지 같이 학교에 다니던 동무 형태를 삼년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동호는 “좁쌀”이란 별명때로 여건히 키도 작고 몸도 가냘팠으나, 형태는 몰라보리 만큼 속성해서, 이미 “질구쟁이”란 별명은 어울리지 않았다. 체구만 그렇게 컸을 뿐 아니라, 형태는 어른 같이 세상 물정을 잘 알았다.

형태는 동호를 극장에도 데리고 가고, 청요리도 사주고 한다. 학교 외에 그런 세계가 있는줄 처음 알은 동호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 아주 나쁜 아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형태의 청을 못이기에 집에서 돈을 훔쳐 내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동호는 양심의 가책을 못이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형태와 더 사귀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다시 착한 아이가 될 작정인 것이다.

그러나 형태는 반죽 좋게 집으로, 학교로 동호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꾸 돈을 달라고 졸라댄다. 그러나 동호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것 때문에 그에

그들은 대가리가 더저도록 싸운다.

그 때 형태는 동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지식아, 넌 예비 예비두 없는 지식야. 설어다 기른 계구명반이야.”

그 말을 듣자 동호는 하늘이 무너진듯 놀란다.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동호는 정신 없이 길을 쓰다닌다. 어떻게든지 해서 형태를 다시 만나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날씨가 몹시 추웠다. 동호는 그에 어느 극장 안에서 졸도(卒倒)하고 만다.

한편 형태는 동호와 싸우고 헤어진 후, 권우천수 김 명수를 찾아 가서, 집에 있지 못한 사정이 있으니 돈 오백 원만 돌려 달라고 청한다. 그 돈을 며천으로 담배 장사라도 해서 혼자 살아 가겠다는 것이다.

김 명수는 돈천 원을 내어 주며, 거러 가지로 친절하게 걱정을 해 준다. 형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전차를 탔다.

전차 안에서 형태는 어갈라져 소매치기도 물리어, 경찰서에 잡혀 가서 결국 유치장에까지 들어 가게 된다.

(1)

꿈자리가 귀송송하여, 동호는 잠이 깨어서도, 얼핏동안 명하나 천장만 쳐다보며 누어 있었다.

얼은 약간 내린듯 하나, 그 대신 사지가 노곤하고, 팔치가 뻐개지듯 아팠다.

어느 새, 땀은 저물기 시작했는지, 땅 구석구석엔 피어밀착한 어둠이 서려어 있었다.

...어머니!

약을 데리러 나가셨는지, 어머니는 옆에 제지지를 앉았다. 불안간 고적함을 느껴, 동호는 어머니를 부르려다 말꼬, 이불을 활타 머리 위까지 뒤집어쓰고 말았다. 꽃날이 시곤하더니, 또 울음이 터져 나오며 했기 때문이다.

눈물을 닦으려고 손등을 갖다 대니까, 눈이 뚱뚱 부은지 지절로 느껴졌다. 생각하니, 아침 형태와 싸울 때서부터, 극장에서 졸도해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을 동호는 울고 지낸 셈이다. 눈이 부을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극장으로 동호를 데리러 오신 어머니의 얼굴은, 졸도했던 동호보다도 몇 배나 더 창백했었다. 너무 놀라셨기 때문이었다.

아니 대체 이제 쉰 일이나. 어찌자구 이 수운 날씨에 아침 두 안먹구, 극장엔 간단 말이나. 가구 싶으면 가구 싶다구 아버지께 어쩔는지 하면 오죽 잘 데리구 가실라구. 너무 참 막하다.”

복동차 안에서, 어떤에 모양으로 동호를 무릎 위에 안으실 어머니는 넉두리 하듯 한 소리 들도 하시고, 또 하시고 하버 오죽 동호의 병만을 근심하실 뿐, 알은 동호를 차마 나무라거나, 꾸짖지는 못하셨다.

동호는 우선은 그것만이 다행하여, 음식 부리듯, 집에 돌아올 때까지, 느껴 슬기만 할 뿐이었다.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간 후, 동호는 겨우 일어나서 미음을 먹었다. 몸도 마음도 이때는 얼음 녹듯 녹아, 맥이 펴 풀리고, 사지가 늘어질대로 속 붙어졌다.

그래서 겨우 잠든 것인데, 마음 속의 괴로움이 아주 다 가시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이

상야릇한 꿈만 꾸다가, 잠을 깨니 식은 땀이 등골을 적시고 있었던 것이다.

깜깜한 이불 속에서 울음을 참고 있으려니가, 현기증이 났다. 동호는 이를 악물고 신열과, 두통과, 현기증과 싸웠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다시 혼돈히 잠이 들려 할 때에, 오만스럽게 미달이가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허둥지둥 누가 방으로 들어왔다.

누굴까? ...동호는 다시 눈을 번쩍 뻐으나, 그러나 이불은 여전히 쓴 채였다.

그 이불을 차디 찬 손이 가만히 빼졌다. 아버지였다.

동호는 커다랗게 눈을 뜬 채, 눈썹 하나 깜짝 안하고, 똑바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한 감정을 아버지 앞에 감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다.

아버지의 찬 손이 동호의 이마를 짚으셨다. 밖에서 얼은 얼음 같이 찬 손이었다.

들어 오시며, 어머니에게 대강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아버지는 아무 것도 동호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마를 짚어 보신 후,

“미련한 자식!”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 따라 들어 오신 어머니를 돌아 보시고,

“대단칠 앓구며, 뭘 좀 먹었소?”

“네. 아까 미엄 좀 먹구 잘 자 걸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서

“제삼어, 제삼어, 사내 자식이 뭘 그까짓걸 가지구.....”

반은 동호에게, 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동호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도 오늘만은, 구중을 안하실 모양이었다.

마음이 놓이자 동호는 몹시 시장끼를 느끼어 어서 저녁 상이 들어 왔으면 하고 그것만을 기다렸다.

(2)

형제한테 처음 개구멍반이란 말을 들었을 때 모양으로, 무리 대고 분하거나 용연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호의 마음은 항상 그 한마디 말에 사로잡힐바 되어 있었다. 앉아 누어 있을 때도 그랬고, 일어나 거동하게 된 지 급도 그랬다.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동호는 기회만 있으면, 그 기회를 모조리 이용하려 했다.

우선 부모의 내색을 살피기



에 애썼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눈 가는 곳, 손 가는 곳, 혹은 무심히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동호는 예사로 분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었다.

형태의 말을 증명할만한, 무슨 단서라도 보이지 않나 해서, 동호는 마치 부모의 행동을 감지하듯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언행에선 아무 증거도 잡을 수 없었다. 동호가 며칠을 두고 알아낸 것은, 결국 부모는 지나 깨나 동호 일만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가장 평범한 그 한가지 사실 뿐이었다.

동호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아시는 때문인지, 또는 서둘러 더드려놓을까봐 그러시는지, 동호가 기동을 하게 된 후에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동호의 행동을 한번도 나쁘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다.

마치, 이번 일엔 통 잠전을 맞시다, 그렇게 두툼이 약속이나 하신듯 하였다. 동호에게는 그러한 관대한 부모가 더 무서웠다.

당연히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거나 해야 할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말이 없으시다는 것은, 무서울 뿐 아니라 불안한 일이었다. 불안할 뿐 아니라 설섭한 일이었다.

.....네가짓 늙, 아무러면 대수냐. 쫓대로 되어라, 사람 같지 않은 늙!

아주 부모에게 이렇게 내버림을 받은듯 하여, 차마리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는 편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고 문득 그것을 생각 하다가,



...휴시, 형태의 말대로...

동호는 뜻하지 않은 결론(結論)에 부딪치자,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생글 몸을 일으켜 뒷뜰 비치는 뒷마루 가로 나가 앉았다.

형태의 말이 정말이어서,

...그까짓, 얻어다 기른 자책, 아무러면 어때! 내버려 뒀, 쫓대로 되라지.

이런 생각으로 부모가 자기를 차지도하시하는 것이나 아닐까? ...동호의 마음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렇길래 그렇지."

동호는 저도 모르게 일 밖에 까지 내어 쫓을거리고 나서, 몇 때 일어나, 공부하는척 하고 사랑 방으로 나갔다.

동호 스스로도 진잡을 수 없도록, 한번 떠돌은 방향으로 따름질치기 시작한 생각은, 무턱대고 앞으로만 달렸지, 되돌아 올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저께지, 그그저께지도, 동호는 처음 자리에서 일어나던 날, 어머니가 잠깐씩 방을 나가시는 틈을 타서, 문갑, 양복장 속은 물론이요, 벽장 구석까지도 살살이 뒤진 일이 있다. 그러나, 형태의 말을 반대하는 증거는 나뉘을 망정, 자기가 개구멍 밤이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형태의 말이 거짓말이라 단정해 버렸으면, 아무 문제도 뒤에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동호의 마음은 그렇지할 못했다. 어느 쪽이든 지간에 아주 확실한 결판이 나야만 직성이 풀릴 듯이었다.

동호는 그 결판을 짓기 위해서, 구멍밤 아미지 책상 앞에 와 앉았다.

꽤 비인 방 안에 오복복서리가 적지도록 찬 겨울이 들었다.

슬기도 하고 해서 동호는 언젠가 양복장에서 돈을 훔쳐 내

일 데 프랑스로 몸을 팔았다.

떨리는 손으로 세상 실험을 열었다.

어려 가지 문서 밑에서 무겁 다란 종책이 나왔다. 문서들은 때겨 사엽 관제인듯, 보아야 할 할 수 없었다.

무겁다란 종책이 동호의 주의 를 끌었다. 일거제인양 무엇인 지 헤알만한 글자로 잔뜩 적혀 있었다.

동호는 딱치는 때로 한 군데 를 찢고 읽기 시작하였다.

×월×일

어제 오늘 동호의 기색이 다 다르다. 학교엔 안가고 나쁜 동무 와 사귀는 모양이다. 좀 쫓겨히 단속을 해야하겠는데, 얼른 좋은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 머지 않아 중학생이니까, 전과 같이 꾸짖고 뺀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읽는 동호의 가슴은 두근거렸 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한 마디도 입 밖 에 내지 않으셨던 것이다. 동호는 차마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 다음 잠을 잤다.

×월×일

양복장 실험에서 돈 육백 원 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어러 가 지 정으로 미루어 보아 동호의 소행인듯 하다. 동호는……

야! 소리를 지르며 동호는 공 책 을 덮어 얼른 실험 속에 처넣 고 후닥닥 사랑방을 뛰어 나왔 다.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도 다 화안히 물어다 보코 계셨던 것 이다.

동호는 시침이를 따 때고, 다 시 양지 바른 뒷마루에 나와 또 그리고 앉았으나, 얼굴이 착착찰 고,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아버지! 어머니!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키스리 운 생각이 앞서, 동호는 안절부 절을 못할만큼 지금 자기 자신 을 매질하고 있는 것이었다.

(3)

아무때는 한번은 자기가 저 지른죄를 갚아야 할 날이 올 것 이다.

이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헤아릴 수 없는만큼, 동호 는 늘 집 안에 있으면 땀땀지를 못하다.

그런 아니라 아직도 그 무서 운 의혹……정만 부모가 아닌지 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 구 석에 남아 있어, 동호는 일시도 명랑한 시간을 가질 길이 없는 것이다.

얇고 난 동호는 아주 침울하 고, 말이 없는 소년이 되었다. 원래도 그리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었지만……

진 3 공부

조선 대포

화포(火砲)는 지금의 총과 같은 무기로 화약(火藥)을 사용해서 적을 물리치는데 썼습니다.

화포는 원(元)나라 때 서양으로부터 중국에 들어 오고, 우리 나라에는

고려 말년(末年)에 들어 온듯 하며, 우리 나라에 들어 온 뒤 늘말만큼 전 보 발달하였습니다. 임진 왜란 때 실제적(實際的)으로 필요를 느껴게 되 어, 서로 연구하고 장제(創製)하여, 새로운 무기 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 진년(壬辰年) 9월 지금 으로부터 한 360년 전, 경주가 일본 군대에게 포 위(包圍)되었을 때, 정찰 도 파병사(左兵使…비술 이름)로 있던 박진(朴 晉)이란 사람이, “비격진

천뢰”라는 새 무기를 제 서, 적을 물리치고 성(城) 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이 진천뢰란 것은, 중국의 금(金)나라 때부터 제오 던 화포의 일종으로, 철 로 만든 통 속에 라는 약 물을 담고 불을 붙이면, 뇌성(雷聲)을 내면서 폭발하여 들어진 탄환 조 각이 위력(威力)을 내는 것인데, 포석기(抛石機… 물건을 던지는 기계)로 쓴 것입니다. 이 때의 화 포장(火砲匠)이 장손(李 長孫)이란 사람이 진천

뢰를 본받아, 쓰는 속도 와 약량의 힘을 깊이 연구하여 아주 빠르고 명 령한 약의 효과(效果)를 나타내게 개량한 것으로, 여저에서, 진천뢰는 비 격(飛擊)이란 이름을 붙 이게 된 것입니다. 그 러고 이 비격진천뢰는, 그때에 있어서는 성을 공격하는 데는 가장 으뜸 가는 무기였고, 또 이것 이 세계에 있는 박격포(迫擊砲)의 선조라고 할 것입니다.

동호가 책을 보고 있으려니
까,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 오시
며,

“동호야!”

하고 부르셨다. 동호는 뜨끔
해서,

“네.”

하고 대답은 했으나 무슨 말씀
을 하실지 몰라, 자신 있게 열
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빙글빙글 웃으시며,

“약속이 틀렸다.그 대신...”

동호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판인데,제발리 어
머니가 가로 말으시어,

“동호허구 무슨 약속 하셨에
요?”

하고 물으셨다.

“약속 했지, 방학하면 시골
데리구 간다구...”

“으응”하고 동호가 고개를 고
덕이려니까, 어머니가 또 물으
셨다.

“참 시골 가신다더니,왜 못가
시게 됐어요?”

“음, 갈 틈이 없겠는걸.겨울

동안은 내가 꼭 여기 있어야할
일이 생겼어.”

“동호 혼자타부 가구실다면
보내시지요?”

“글세.”

하고 아버지는 새만 물어다
보고 있는 동호 쪽을 향하여 물
으셨다.

“어떡하면.....너 혼자타부 시
골가면?”

동호는 잠깐 생각하였다. 얼마
마 동안 시골 가서 지내며, 아
무것도 생각 안하는 생활도 좋
을상 싶었다. 그러나,고쳐 생각
하면, 지금 같은 복잡한 감정을
꺼지고 시골결 간헐자, 그런 생
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
이었다.

어떡할까? 동호의 마음은 아
적도 망서리고 있는데,

“싫어요. 집에서 시험공부 러
겠어요.”

먼저 그런 말이 입 밖에서 새어
나왔다. 그러나 후회하지도 않
았다.말하자면 동호로서는 아
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을 겨울엔 아주 제수가 없
구나.심전 앓고 나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시골에부 안데리구가
싶대구.....”

어머니도 웃으시며 동호를 달
래듯 이렇지 말씀하시고,

“그 대신 스케이트나 구구려
서 새것 하나 사주시구려.”

“그머지. 그러지 않아부 그럴
생각없어.”

아버지는 절절 웃으시며,

“동호야, 시골 가는거버딘 그
게 낫지? 그럴지?”

하고 수그린 동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제서야 동호는
겨우 고개를 쳐들고,

“네.”

힘있게 대답했다.

새 스케이트를 사려는 것은,
작년 겨울부터의 숙제였던 것이
다.순간,동호는 모든 상념이 머
릿속에서 씻은듯 사라지고, 서
로운 한 가지 기쁨만이 필장
넘쳐 흐르는듯 느꼈다.

동호는 워던 책을 탁 떨어준
갑 위에 얹어 놓고, 벌써 일어



서며,

“지금 사려 갈까요?”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은 그 녀석, 성미두 급하다.”

“안사준것으면 올번 했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마더씩 하시고 나서, 일시에 가로로 옷이 대신다. 동호도 덩달아 옷을 수 밖에 없었다.

“일찌감치 저녁 해 주며, 밥 먹구 갔다 오렴.”

“그럼 어머니, 빨리 저녁 해주세요.”

일겨주실라고 했던 동호는 다시 절박 주저 않았다.

그 꼴이 웃음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참 동안 허리를 웃겨시켰다.

(4)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인지, 오정 밤에 안팎은 때, 심신이 몹시 모달렸다.

동호는 가쁜 숨을 들리며, 멀리 철교 쪽으로 시선을 돌려 본다. 인편행 기차가 우회 같은 소리를 내며 철교 위를 달리고 있었다.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 땀을 맺었다. 열을 위를 건너 오는 강 바람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시원했다.

물아 올린 눈 위에도 허무를 벗어 걸고, 동호는 턱을 펴고 걸터 앉아, 힘 있게 눈 앞을 달리는 사람들의 모양을 부러운듯이 바라보았다.

모자를 즐겁게 열을 위를 달리고 있었다. 남쪽 허리를 구부리고, 뒷짐을 지고, 제법 선수나 되는듯이 몇만 부리는 중학생도

있었다. 새로 벼운 사람인지, 짙게 실겉지 몇*걸을 지쳐다가는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는 어른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피규어 선수인 듯 체비보다도 날쌔게 가볍게 가로 세로 열을 위에 원(圓)을 그리는 어학생도 있었다.

동호는 새로 신고 나온 새 구두와 새 스케이트를 내리다 보았다. 스케이트 날도 날카롭고 구두도 발에 딱 맞아, 다른 때 같으면 하루 종일 지쳐도 오히려 부족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몸이 고달픈 것은, 무슨 때 문인가? 알고 난 몸이라서 그럴까? 그리고 그것 뿐일까? 아니다. 그것 뿐이라면, 마음까지 어떻게 커로울 까닭은 없었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 거의 한강(漢江)에 나와 산다 싶이 하는 동호이었다. 스케이트만 신고 나시면,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동호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한해서, 쉼일인지 조금도 마음이 얽힌채 풀미지를 않는 것이다.

날씨도 좋았다. 그렇다고 열음이 절척절척 녹을 정도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동호는 더 열음을 지칠 생각이 나지않았다.

그 때 형태와 비슷한 모습의 중학생이 동호 곁에 와 걸터앉았다. 물론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동호가 깜짝 놀라리만큼 그 중학생의 옆 얼굴은 형태와 흡사했다.

……형태!

동호는 입 안에서 동무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 보고,

이건 참 심상

버짐은 이렇게 없애라

얼굴에 버짐이 자주 끼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 하기 전에 버짐있는피를 손으로 약 이부간만 문지르십시오. 이 버짐은 밤에 자는 동안 피부의 모세혈관(毛細血管)이, 잘 문지않는므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문질러 피를 잘 문지르면 없어지는 법입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생각날 때에 하십시오.

……참, 그 자식, 요새 뭐 하나?

미운 생각이 비쩍 들면서도 한편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다. 매일 같이 만나던 동무니 그렇지 않을 리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태자식을 찾아 내야 할텐데……

무엇보다도 만나서 자기의 궁금을 풀고도 싶었지만, 또 한가지, 자기만 착한 아이가 될 뿐 아니라, 형태까지도 바른 길로 이끌어서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정말 우정(友情)이라 할 수 있었다. 동호는 얼른 형태를 찾아 내기로 결심하고, 스케

이트를 벗으며,

길...뒤래드라, 그 자식 아는
원투 선수가...거기 가면 만나질
못해두 소식은 알게야...명동이
했지 명동...

그렇게 생각하니, 별안간 기
운이 나는듯 하여, 동호는 단숨
에, 전차결까지 경 문턱을 뛰어
올라 왔다.

지금의 동호의 생각에는 형태
만 만나면, 자기의 피로움은 모
두 해결된 것 같이만 여겨졌다.

형태가 착한 동무만 되어 준
다면, 동호에게는 이 보다 더 큰
힘이 될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형제 같이 서로
외지해 지내면...

이 세상이 오직 즐겁기만 할
것이였다.

—(계속)—

아프로숨 만화책 제1집
고추장군과 곰동이
그림 · 김 의환

어린이 신문에 연재하여서 독
자들의 호평을 받은 "고추장군과
곰동이"가 이제야 예쁜 책으로
꾸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추
장군의 석색하고 용감한 모양을
꼭 한번 보십시오.

책 값 90 원

서울시 龍山區 厚岩洞 27의2

아프로숨 발행

그림속담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
는다

미물의 겸손인 새도, 앉을 나
뭇가지를 골라지 앉거늘, 파불
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어찌 선악
(善惡)을 가리지 않을 것일
가. 동무나 직업, 이 밖에 모
든 것을 잘 고르고 신중히 생
각하여,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가
야 할 것이다.

산돼지 잡으러 갔다 짐
돼지 잃어버린다

삼척지를 잡으러 갈때 간 동
안, 길에서 거르는 돼지를 잃
어버렸다는 뜻이니, 분에 넘치
는 욕심을 부리려고하다가 오
히려 온 손해를 보았을 때 이
같이 말한다.



진날 개 사귀니

비오는날 개를 사귀어놓으니
그 물이 소중하리. 진 말도 이
미 귀고 지리 뛰여 덩비면, 옷
이 더러워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
람도 나쁜 동무와 사귀어 놓면,
그 영향 (影響)을 받는 일이
적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말.



꽃밭에 불을 지른다

앞길이 유망 (有望)한 사람
을, 있는 말 없는 말로 나쁘게
유하여 불행 (不幸)하게 만드
는 것을 말하며, 또 좋은 일에
방해가 생겨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씀.

(그림·김 의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유대와 아랍은 어떠할라

서울 사범 대학 강사 정 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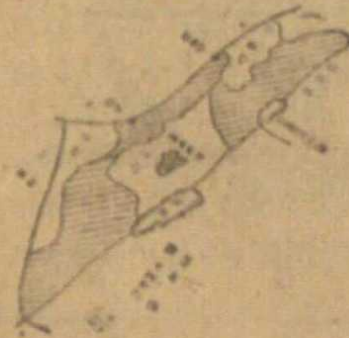
이와 세계 대전 이후에 있어서
"영하나 다시 전쟁이나"라고까지
일어질, 큰 원인은 세계적 외교
문제는 마음의 다섯 가지를 알
할 수 있다.

1. 독일 통일 문제
2. 최후의 내란
3. 인도네시아 독립 문제
4. 우리나라 통일 문제
5. 아랍과 유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다 각각 그 분
계(筋管)와 대립(對立)의 실적을
말려하나, 그러나 공통된 성격을
가진 것도 알 수 있다. 즉 독일문
제는 전체국을 에워싸고 전승국간
의 외교적 대립, 최후내란과 조선
통일 문제는, 강대국의 이념(理想)
과 경제의 지배를 얻고자 함
에 있어서, 약소민족의 지구단결,
인도네시아 독립문제는 지배하던
나라와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간
의 싸움이고, 유대와 아랍문제는
같은 민족 생존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인류의
정의(正義)와 인도(人道)에 이끄
지 못하는 문제므로, 국제연합 같은
기구가 있어도 빨리 해결을 짓
지 못하고, 전쟁이던 전쟁이 지구
의 이모 저모에서 일어나고 있다.

2

이제 본문제인 유대와 아랍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기로 하자.



이 나라들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즉 서남아시아의 일부를 차지한
지역에 있다. 이 서쪽 아시아는
아라비아반도, 소아시아반도, 페
시아 일대에 걸친 큰 지역인데, 면
적도 우리 나라의 32배 이상이
나 되는 고원지형(高原地形)을 이
루운 열대(熱帶)와 아열대(亞熱
帶)에 속하는 사막이다. 그러므로
이 지방의 인구는 매우 적어서, 우
리 나라 인구의 두배도 못되는
5,000만 가량이 살고 있다. 그런
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오
래 살면서 농업이나 공업을 할만
한 지역은, 아라비아반도와 페시
아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평원과
저중해의 동쪽 기슭뿐이다. 따라
서 이 지방의 주민의 대부분은 오
아시스를 따라서 이미 저지 옮겨다
니며 사는 유목(遊牧)민들이다.

기후는 어떠한가
하면 전조기후인

대, (우량 227미터)
비그라드 658미터

게다가 대륙성이
므로 아랍 지역의



차가 또한 심하다. 이러한 자연환
경은, 오랜 역사를 지내왔으나, 근
대 문화화합을 제약(制約)하여
왔다. 그러나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여 살아나간다는 마음만은
가졌음으로, 인류의 최초의 생활
형태일망정 유목(遊牧) 천지(泉
地)문화, 즉 세계 최고의 예갈르
문화, 마비돈, 아시리아, 아라
비아, 유대문화를 창조하고, 이
러한 문화를 더욱 훌륭히 만들
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교, 예
수교, 마오넛으로 같은 종교
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설로
그들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까
지, 인간관 천지 획득의 싸움의
역사이며, 특히 최후고는 이러한
정지를 얻기 위하여 맹렬한 투쟁
을 계속하고 있다. 유대와 아랍
의 분쟁도 결국은 이러한 싸움의
하나이다. 사막의 생활은 날트
근대화하여 인공관개법(人工灌溉
法) 사람의 힘으로 논밭에 불태는
법)도 연구되어, 과수원을 만들어
야사수는 물론이고, 면화, 밀, 보리
등의 곡식도 많이 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석유도 발견되어
구미 여러 나라들이 손을 내밀게
되고, 또한 세계의 보그인 동양
인도와 유우를 열강의 사이에 있
음으로, 스위스운하의 개통과 동
시에 이 지방의 세계적 지위가 높
아져서, 오늘날과 같이 중요한 곳
으로 된 것이다. 과연 세계의 영
지아 교통의 육교(陸橋)라 할은
지방일 말이다. —계속—

동화 은행일편지



김요섭

시를 옥이한테 제진부 아저씨
가 서울 누나께서 온 엽서 한 장
을 주고 갔어요.

옥이는 참만 기뻐서 춤을 몇 살
덜릴 주고 싶습니다. 아마 옥이
가 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혼자
차지한 편지를 할아 보니까요.

이따금 경상돈가 어딘가 그 먼
곳에서 보내오는 아저씨 편지야
도, 언제나 옥이 잘 크느냐고 써
어 있지만, 그까짓건 아버지한테
오든 편지 한 귀퉁이애니, 정말
바늘 끝만하게 작게 써어 있는
것이니까, 별로 반갑지 않습니
다.

그러나 오늘 편지만은, 예뻐!
옥이 독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누가 있으면 막 뽐
내고 싶습니다.

씨들이, 꽃기도, 골동기도, 오
늘따라 통 볼 수가 없는 것이...
...있었드라면 이 편지를 자랑하
겠는 데, 그렇지만 내일 학교가
서 자랑하면 됩니다.

편지는 왔는데 옥이는 아무리
읽어 보아도, 무슨 사연이 적혀

있는지 읽어 낼 수가 있어야지
요.

옥이라고 쓴 두 글자밖은, 자
기 이름이니까 어떻게 읽을
수가 있어, 옥이에게 온 편지입에
는 물론 없고,

그까짓 일본 가다가나로 썼으
면 줄줄 읽지만,

지저분하게 받침이 수두룩 달린
글. 피만 부리꼬 한글공부 재울리
한 옥이는, 제일 수월한 별자적
뒤어가다, 간혹 쉬어 있는 "아"
자나 "가"자 같은 글자를 훑어
읽어 가지고는, 도무지 무슨 사연
이 적혀 있는지 감잡합니다.

옥이는 병어라 생각습 알듯 답
답하지만 하지요.

반나절 초주머니에 꾸저 넣고
다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들고 갔더니, 부재로 막 머리를
머리며,

"꺼놈, 이렇게 수월한 글도 못
읽고 어쩔담. 그러기에 정난
만 말꼬 공부하라지."

한마디에 쫓겨나오고, 이번에는
할아버지한테 들고 갔더니,

"이녀석, 네 못보기는 왜 영차
먹었어? 글이 피어야 읽지."

공방대로 물지방을 두드려서
야만하는 바람에, 또한번 어찌
할아버지 못보기를 볼때 글과
가 엽서먹은 무늬를 특특히 들
고, 머리를 북북 감으며 물러나
왔습니다.

옥이는 편지를 보며 무르뫼
가지고, 마루에 앉아 골골히 생각
다다, "올지 뵈군" 넷물에 편
대나간 어머니한테 부리나게 말
러 나왔습니다.

"엄마 글방에 가서 한글을 배웠
지요? 엽서 누나께서 온 편지
요."

"어디, 무슨 사연인가."

옥이 어머니는 팔레피다 말고
짓은 손을 땀주지마에 짓고, 엽
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옥이 어
머니도 밤마다 공책을 달달 읽어
주고, 마을 글방에 가서 한글을
배우나, 좀 읽기에 어찌든지, 얼
속으로 읽다가는 쪽쪽 걸러서는
옥이 눈치를 살피다가는 바쁜데
는 쪽쪽 빼어놓고, 다음 줄을 읽
어 가곤 하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 쓰여있어?"

옥이는 어머니가 읽는 것이
다리기에 갑갑한듯이 들었습
니다.

"자세히는 물어졌다. 올때
같이 몇개나 알렸느냐고도 있
고..."

"올지, 뒤물에 갈나무 말
그리고 도?"

"갈 말 때, 이거 가을이
나? 가을에 편지라라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있는 것 같지
다."

“꼭 어떤 방학에 놀러오란 말 없우?”

“처음에 쓴 말이 그런 말인가? 글자가 있는 것 보니까.”

“아마 그 말일거야.”



어름이 지냈습니다. 사뿐사뿐 가을이 들길에 산길로 떠 났습니다. 가을은 아마 들길을 가지고 서는가 보지요.

라들게처럼 자랄던 파랗던 산이, 들이, 밭이, 가을 바람이 머저리 들길을 꾸미니까, 산도 들도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기도 합니다.

편지란지 꼭 두말하고 스무달만에, 서울 있는 누나한테 팔알에 나뭇잎 두수수 치는 바람 부는 날, 꼭 가을 바람에 날려 온듯이 서울 옥이한테서 봉투 편지가 날아 왔었습니다.

뒷중에는 빔빔 글씨로, 옥이라고 인친로 겨우 쓰다칠이 써어 있고... 누나는 붙아붙아 우리 동생 옥이가, 벌써 편지 쓰도록 된나? 무슨 말이 써어 있을까?

궁금히 생각하며 봉투를 뜯어 보니, 노오란 은행잎 한 장이 넣어 있고, 하얀 백지에 빨간이 크레용으로, 동그라미가 수두룩히 그려 있습니다. 어디중얼한 누나는, 두 눈이 구름처럼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영문모를 누나는, 머리를 이리 가누 저리 가누, 입만 연구해도 은행잎 편지를 깨칠 수가 없

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꼬? 그 날밤 꼬박꼬 생각하던 누나는, 밤 늦게야 겨우 은행잎 편지 사연을 알고, 방그레 웃으며, 옥이한테 편지를 또 썼습니다.

“편지”

은행잎 편지 받았다. 참 재미있는 편지다. 은행잎 노랗게 들은 가을이 뭘다는 사연, 그래서 감도 다 익었다고, 그 감이 일백 스물네 개나 익었다고, 감 같이 둥근 동그라미 일백 스물네 개나, 그러고 오오 참, 아기자기한 은행잎

은행잎 편지 읽고, 서울 누나



은행잎 편지 부친지 맞세만엿가 엿세만엿, 누나께서 은행잎 편지 받았다는 회답을 옥이는 또 받고, 정말 자기가 난생 처음 부친 편지가 기차라고 서울까지 간 것이 신기스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옥이는 그 날 밤부터 길고 긴 가을밤, 북성문이 관물기리는 등잔불 밑에서, 늦도록 밤늦도록 글을 부치면서 읽습니다.

장문으로 등불빛과 더불어 새어나오는 옥이의 팔도 읽는 글 읽

는 소리, 초지불 위 하늘에 초목별 열두 형제는, 숨을 죽이고 옥이 울래 지지 않고 엿듣고 엿지요.

참 글도 잘 읽는다. 저렇게 부치면라면 으매자 알아, 정말 편지 한글편지를 쓸 것 이야.

“암 쓰고말고, 오늘 밤 옥이의 꿈에는, 우리 빌나라 구경을 시키자 응?”

초목별 열두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편지, 누나도 네 은행잎 편지 받고, 며칠 후 가을이 온 시골로 내려가마. 이 다음에 편지할 때는, 은행잎 편지 말고, 모모 핫은 우리 한글로 한글편지 쓰도록 하이라. 두번만 그런 은행잎 편지 같은 편지를 읽다가는, 내 머리가 참머니 머리처럼 더알게 되겠구나. 한글 학교서 배우지?

(그림·정 현웅)

★작품 모집★

여러 분 소학생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 동요, 그림, 습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편집실)

동요 가 랑 일 박 은 종

천 달밤에 푹 푹 푹
창문을 푹 푹 푹

찾아 온 손님은
가방있 하나
가을 바람에 쫓겨 온
가방있 하나

달 지도록 푹 푹 푹
창문을 푹 푹 푹

초가집 주인은
배랑이 한쌍
배 내릴만 차노라
배랑 배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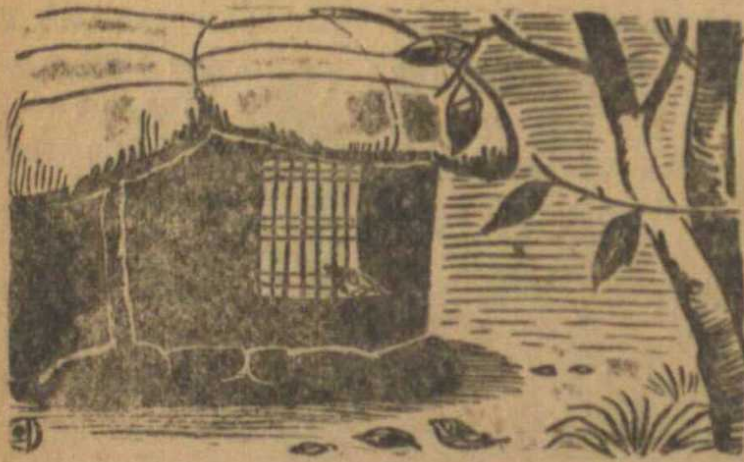


그림 · 김 의 환

★ 역사 이야기 ★

소 타고 다니는 맹 정승 황 의 돈

맹 정승(孟政承)의 성은 맹씨(孟氏)고, 이름은 사성(思誠)이며, 자는 성지(誠之)요 본은 진창(新昌)입니다. 그러고 한성윤(漢城尹) 벼슬로 있던 맹희도(孟希道)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5백 9십 여년 전에, 충청도 은양군 오봉산(五峰山) 아래서 났다고 합

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많고 또 글읽기를 좋아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성품이 곧고 깨끗하기로 유명하였었는데, 마침내 고려(高麗) 말년에 고등관 시험 인물과에 합격되었습니다.

이조(李朝)초년에 태조와 태종의 사랑을 받아서 벼슬이 차

츄차츄 올라가고,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정승(政承)이 되었습니다. 정승이라는 벼슬은 지금 국무총리(國務總理)와 같은 벼슬로, 나라일을 도맡아 보는 벼슬입니다. 지금은 국무총리가 단 한 사람이지만, 그때엔 국무총리 적으로 맹희정(孟議政), 최희정, 우의정의 셋이 있었었습니다. 이들이 나라일을 의논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이 세 대실을 밑간에서는 정승이라 불렀습니다.

맹사성도 우의정이었기 때문에 맹정승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그의 별명으로 맹고불(孟古佛)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호령할 만한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청렴하고 겸손하여 출입할 때, 반드시 소(牛)를 타고 혼자 다녀서, 세상 사람은 맹정승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미복으로 소를 타고 흥포 그의 고향인 은양으로 갈 때, 안성(安城), 진위(振威) 두 곳 군수가 맹정승의 오신만 말을 듣고 마중차고 나가니, 모퉁에서 어떤 노인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는 촌 농부로 알고 길을 비키라고 호령을 걸었습니다. 그 말에 그 노인은 천연스럽게

“맹고불이 제 소 타고 간대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청천벽리 같은 이 한마디 소리를 듣고, 그 두 군수는 깜짝 놀라서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 당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少年科學史
소년과학사 (5)

— 옛날 조선 사람들의 생활과 과학 —



제1도 옛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홍이섭

여태까지 세 번의 권
 과서 과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물과 모구
 의 제작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
 의 조상(祖上)이 되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 생활하는
 때에 날마다 과학(科學)
 지식(知識)을, 어떻게
 응용(應用) 하였는지를
 간단히 얘기할까 한다.

× × ×

조선 사람들의 조상들
 은, 아주 옛날에는 오늘날
 의 조선반도(半島)와,
 만주(滿洲) 일관과, 지금
 북지(北支—북경=北京
 부근) 근처에 걸쳐서 활
 동을 하였다. (제1도)
 이 때에 널리 흩어져서
 살던 조선 사람에 대해
 서는, 중국 사람의 역사
 기록에 보면, (번지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수
 (陳壽)라는 이의 삼국
 지(三國志)를 가지고

알았다) 북쪽(중부 조선
 에서 지금 쓰면영로 현
 해주—沿海州 일관에서
 남북만주일관)에는, 을
 주(挈婁—인려주 일관,
 옥산—肅慎이라고도 한
 다) 부여(夫餘—만주의
 송화강—松花江을 중심
 한 만주일관) 고구려(高
 句麗—만주 일관에서 북
 지, 지금 압록강—鴨綠
 江 일관) 옥저(沃
 沮—함경남북도 일관,
 지금 조선의 동북일관)
 예맥(濊貊—지금 강원도
 지방?) 등 여러 종족(種
 族)들이 살고 있었고,
 남쪽에는 흔히 말하는,
 삼한(三韓—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
 韓)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잡하게
 갈려서 흩어 놓은 것이
 이, 다른 여러 민족(民
 族)들이 아니라, 모두가
 오늘날 조선 사람들의 한
 조상이라고 불만한 한 민
 족(一民族)이었다. 그런

때 이렇게 갈려져서 기
 목의기는, 외국 사람인
 중국 사람이 저기 때문
 에 다 다른곳이 섞였지
 만, 실상은 북에서 남까
 지 통일이 조선 사람들
 이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과학·기술
 의 성모(程度)는 북과
 남에 따라, 뿐만 아니라,
 곳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差異)는 있었지만,
 대체로는 오늘날 조선 문
 화의 기원(起原—시작
 되는 본 바탕)으로 볼
 수 있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북 어느 때부
 터 조선의 문화가 일어
 나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
 강 서력(西曆) 기원(紀
 元) 전인 3세기까지를
 중심해서 얘기한다. 이
 때를 놓고 보면, 서양에
 서는 지중해(地中海)를
 중심으로한 허말(希臘)

Greece=그리스)·로오
 마(羅馬, Roma)등 고대
 문명 사회의 과학이 한
 장 발달되었던 때요, 동
 양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가 또한 일찍 문화의 발
 달을 자랑할 수 있는 때
 였다. 조선은 아시아 동
 북쪽에 있으면서 자승 발
 달을 하여 오던 중, 중국
 의 한민족(漢民族)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의 영
 향을 받아서, 더욱 발전
 하게 되었다.

× × ×

먼저 석기, 청동기, 모
 기, 골각기 사용을 말하
 면, 사용하던 물건이 어
 떻다프만 얘기를 하었을
 뿐인데, 대체로 사용하
 던 도구를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던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지금 조선반도
 안 여러 곳에서 발견된
 도구를 사용하던, 그때
 의 조선 사람들은 어떠
 한 생활을 하였을까?



제2도 일복강 건너에 남아 있는 예무영의 벽화(壁畵) 고구려 사람들이 용감히 사냥하는 모양.



← 제3도

함경북도 위천군(蔚川郡) 유비동(柳比洞) 발견된 고대농구(古代農具) - 농기(農器)

↓ 제4도

함안남도 안동강변(安東江邊)에서 발견된 석수(石斧) 여러 가지 모양의 24호 무덤에 보임.



그 출토품이 여러 가지로 풍부한 김해(金海)의 개총(貝塚-조개 무지)을 들어 보면, 그때는 확실히 조선 사람들이 한 곳에 붙어서 살았다고 본다. 곧 농업시대(農業時代)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리니, 다시 말하겠는데, 인류문화(人類文化)의 발달(發達)이 온 것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흔히 그 시대(時代)를 나눠서, 유목기(遊牧期-가축=家畜)를 들고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니면서 살던 때, 이에 앞서 수렵기(狩獵期)가 있는데, 이때는 짐승을 쫓아 다니면서 잡아 먹고 살았다고 한다.)에서 농경기(農耕期, 즉 농업시대)로 옮겨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 먼저는 떠돌아 다니며 살다가, 나중에 한 곳에 붙어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붙어 사는 농경기에 와서는, 생활이 훨씬 달라진다.

전에는 떠돌아 다니기에 먹을 것을 그날 그날 잡아서 먹지만, 한 곳에 붙어 살면서는, 먹을 것을 하루에 다 먹어 칠 수도 없고; 또한 다음 날 먹을 것도 장만해 둘 필요도 느끼어서, 먹을 것을 담아 두는 도기도 만들었다. 그런 아니라, 전에는 날마다 잡아만 먹던 것을, 한 곳에 붙어 살게 되자, 먹을 것을 사람들이 제 손으로 다시 만들어 내게 되었으니, 이것을 식물(食物)의 재생산(再生産)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짐승은 한번에 때려 잡아 먹어 치던 것을, 길들여서 키워가 되고, 또 새끼도 치게 해서, 자츄 불러가며 먹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은, 인류 공통(共通)

의 사실(事實)이다. 이로부터 가축 키르는 말을 생각하고, 옛날 사회에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직부(職務)의 하나가 되었었다.

조선 역사 상에서도 이런 예(例)를 들어볼 수 있다. 삼국지란 책에서는, 일찍이 고대(古代) 조선 사람들이 관명(官名=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의 벼슬 이름)에, 말(馬)·소(牛)·돼지(豚)·개(狗)라는 이름을 붙여서 썼으며, 또한 물건 운반(運搬)에도 소·말을 쓰고, 더욱 가축을 갈 먹이였다(기른다)고 했다. 그런 아니라, 조선만도 안에서는, 북으로는 함경도 용기(龍基)라든지, 유관(油坂) 개총 등에서 출토 되는 유물에서나, 남쪽 김해에서 찾아낸 땅 속 물건 중에, 짐승의 뼈가 나오는데, 그것은 도구로 사

용하지 않던 것으로, 지금 생각에는 그때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잡아 먹고 내버린 것이기; 이제 다른 일을 모구와 함께 발견된 것이라고 보겠다.

남쪽을 통해서 일반으로 개(犬)의 뼈는 흔히 보인다. 또 조선 안에서 잘 알려진 사슴·여우·늑대·산돼지 뼈도 보인다. 이것으로 보면, 소·말·돼지는, 역사 기록에서 보듯이, 가축으로 기르고, 소와 말의 힘(勞動力=노동력, 힘을 나른다든지, 농사하는데 사람의 힘을 도와 준다)을 이용하였고, 개를 길러서 사슴·여우·늑대·산돼지 같은 동물(動物)을 사냥하는데 비리고 다닌 것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 외에 학·꿩이나 닭의 뼈 같은 것도 있었으니, 난짐승도 사냥가는 길에 잡아

다 먹은 것이 분명하고, 인가(人家) 근처에 밭들이 모여서 구우려 돌아다니던 원시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생활하던 한 모습을, 눈 앞에 그리려다. 또 조개무지의 구성(構成)을 보면, 바다에서 나는 어패(魚鱗=물고기과 조개 등)를 잡고 전지서, 일용 음식물에 썼던 것이다. 그 중에는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멀리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아가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 먹은 흔적도 있으니, 남쪽 김해 백령에서 나오는 어패 종류의 거시나 접점에서 살필 수 있다.

× × ×
 조선서는 아직 수렵기와 농경기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 이 문제도 앞으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질 문제이다. 앞서 말한 수렵·목축이 되었을 때, 접하여 잡채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농사 했었다는 이 사실

도, 역사 기록에서 보면, 북쪽의 부여·고구려의 조선 사람이나, 남쪽 삼한의 조선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 짓기에 힘썼으며, 논·밭을 잘 부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로기=락아리 같은 것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농사 지어 생긴 무물(穀物)을 담아 두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또 그런 무물은 껍질을 두드려 버려서 익혀서 먹게 되니까, 원시시대의 석기공은 무물 껍질 벗기는 데도 사용했고, 재생산된 식량(食糧)을 로기에 넣어 두고 살림을 했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도구로는 밭을 가는 것이니, 원래는 목기(木器)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에도 목기 농구(農具)가 약간 있으나, 원래부터 사용하던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목기를 사용하던 것만은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이 차츰 변하여서 철기(鐵

器) 농구로 변하는 것이 일반의 세이다.

철기 농구를 사용하면서부터, 농업은 훨씬 더 진보된다. 원래(年代)로 보면 중국 주(周)나라때 금속(金屬) 도구와 같은 것이 조선서도 발견되는 때, (제3도) 그 중에 농구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고 지금 요동(遼東)반도(남만주) 노철산(老鐵山) 관양목양성(牧羊城) 옛터에서도, 농구로 볼 수 있는 철기 조각이 발견된다. 남만주에서 조선반도 안에 걸쳐, 이런 철기 농구가 발견되는 시기(時期)는, 중국에 비(比)하여 보면, 주에서 한대(漢代)까지로, 고대 조선에서 확실히 철기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무물 종류로는, 역사기록에 오곡(五穀)이라고 하였으니, 오슬 오곡의 종류가 다 재배(栽培)되었고, 과일(果實)재배도 되었다.

이 무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쌀인데, 쌀은

어느 곳을 통하여 조선에 건너 왔는가? 지금 김해 백령 속에서 쌀이 다져 밭 어리킨 것이 발견되었으니, 백령 지대에 살던 사람이 쌀을 알았고, 또 조선 사람의 기록에는 기원 일세기쯤에 백제(百濟) 다루왕(多婁王)이, 나라에 명하여 논(稻田)을 갈라고 했다. 이어서 조선 사람은 서력 기원전에 쌀을 받아 들이어서 경작(耕作)했다. 먼저 얘기하듯이, 남만주와 북조선에서 갈채 농구를 발견한 것을 보면, 일찍부터 쌀을 재배하던 중국의 황하(黃河)연안의 도작기술(稻作技術)이, 북치나를 거쳐 만주가 조선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서력 기원 일세기 처음쯤에는, 조선 반도 남쪽까지 도작기술이 전하여졌고, 이어 그 후에 일본 북쪽 구주(九州)지방으로 옮겨진다.

× × ×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

學生朝鮮語辭典 李永哲 編纂 李熙昇 監修

국어 공부에 열심인 여러 학생들은, 이 4학생 본권이 사전 5을 한 권씩은 꼭 가지셨을 줄 압니다. 만일 아직도 안가지신 분은, 지금 곧 주문하시어 언제나 곁에 놓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책 값 250 원

서울 鍾路 乙酉文化社 發行 振興 替 水保 鳴汀 京 254 香

과학 박물관장 조석성 선생 지은 곤충이야기

우리 인류와 가장 인연이 깊은 곤충들이 이 책에 모조리 나옵니다. 그 생김생김과 생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점, 해로운 점, 또 잡는 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재미있게 적혀 있습니다. 잇따 공부에 훌륭한 참고서.

책 값 150 원

서울종로 아협 발행

시 과학·기술 방면에서
 상요히 볼 것은 방식(紡
 織)이다. 이것도 사람들
 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변하여 발달됨에 따라
 변천하였다. 지금 방식
 불이 남아 있지는 않으
 나, 실물을 보고 얘기는
 못하나, 다른 증거(證據)
 를 가지고 얘기한다.

어려 분은 요즈음도
 가마니 치는 것을 구경
 도 하고, 자기 손으로
 치본 사람도 있을 것이
 다. 또 그런 것을 짚는
 구경을 하었을 것이다.
 무엇을 짚을 때에, 끝에
 매다는 무슨 덩어리를
 보았을 것이다. 지금 견
 해 캐총이나, 매구(大邱)
달성공원(達城公園) 유적
(遺址), 경남(慶尙南道)
양산(梁山) 캐총, 창녕
 (昌寧) 고분(古墳)에서
 발견된 방추(紡錘) 무
 엇이든지 방적할 때 매
 다는 덩어리)등을 보면,
 그 지방에 살던 옛날 조선
 사람들이 직물(織物)을
 제작했었다. (제 4 보)

대개는 진흙 덩어리로 만
 들었는데, 편편하고 둥
 그렇게 된 원판(圓板)가
 운데 복판에 구멍이 뚫
 린 것, 또 주판(珠盤)
 알처럼 된 것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짐승
 의 뿔을 갈아서 만든 것
 도 있다. 이런 것은 대
 체로 세계 각처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어린이 들 에 게 거 짓 을 없 이 하 자

오 기 영

사랑하는 조카들에게!

우리 나라가 왜 망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들 알아시지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어서 나라가 망했더라는
 설명은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까닭 가운데는 우리
 민족의 큰 힘 중의 하나로 거짓말하
 는 버릇이 있습니다. 실상은 이 거짓
 말하는 버릇이야말로 나라를 망라
 게한 그 중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굳세고 참되고 나
 라를 사랑하는 이도 많았으나, 또
 마음은 약하면서 거짓은 많고, 나
 라보다는 제 몸을 더 사랑하는 사
 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수요가 굳
 세고 참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마치 발 가
 운에 한두 포기 잡초 같아서, 기운을
 쓰지 못하는 것인데, 반일 이런 약하
 고 거짓 많고, 나라보다 제 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게 되면,
 그 때는 수요 적은, 굳세고 참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태를 받게 되고, 필경은 나라가 망라
 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거짓
 이 많았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나, 그러나 이것은 숨길 수 없
 는 사실입니다. 굳세, 나라까지 망
 라도록 거짓이 많았던 것이니, 더 할
 데 무엇합니까. 뭐, 일본 놈이 강
 해서 우리가 망했다고요? 그게 우
 손 말입니까, 제 우라는 일본보다
 약했던가요. 거짓이 많았던 까닭입
 니다. 겁안끼리 믿지 않고, 동맹끼
 리 믿지 않고, 마침내 동포끼리 믿
 지 않고——그러니 사람이란 존중
 는 못하게 마련이니, 동포를 못 믿
 으면 남이라도 믿어보려고, 혹은
 일본을 믿고 혹은 노씨아를 믿고
 혹은 영국을 믿고, 임금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국민은
 몽천술을 모르고 서로 못 믿어 의심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일본이 강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망했던 것이
 니다.

사랑하는 조카님네들!

이런 것은 남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요, 북으로 경안남도
대동군(大同郡), 순천군
 (順天郡) 일원에서도 만
 전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
 용해서 짚는 직물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
 는 옷감(布地), 둘째는 명
 식(筵席), 세째는 그물

(漁網=어망)등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것
 들은 지금부터 2000년
 이나 앞선 옛날 것이 남
 아 있지 못할 해서, 대장
 을 미루어 연구하는 것
 이다. 그것은 골 썩기 쉬
 운 물건들이어서, 우리
 들은 다시 역사기록으로
 돌아가서 한두 가지를
 더 알아 보기로 한다.

- 1 "아란 사람은 누에치
 는 법을 알고, 비단옷
 감을 만들었다."
- 2 "편한 사람은 또쪽집
 은 비단을 짰었다."
- 3 "예(濼)에는 배(編
 布)가 있고, 누에를 치
 고 명주를 만들었다."
- 4 "부어(夫餘)에서는 흰
 옷을 즐겨 하고...가수
 신을 신고, 밖에 나갔

지금도 우리 나라가 독립을
찾는 중입니다. 지금 우
리 민족을 지도하시는 여러 어
른들은, 어서 어서 독립이 급
하다고 하시 쳐우르코 제입니
다. 물론 독립이 급하다는 과
한 하루가 세롭게 급하다는
무슨 일이나 쳐우르기만 해서
만되는 것이요. 더구나 한 나라
의 독립이란 쳐우르기만 한다
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슬픔은, 이제 오늘에
서 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카님네가, 이 세상에 나가
고, 이 글을 쓰는 나보다 이 세상에
나가 본인 60년 전부터요, 독립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문
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아직까지 우리는 완
전한 독립을 누리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에게서 아직 거짓이 없
어지지 않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님네들!

이 세상에 그중 살고 해야 할 일
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분
은 아직 어리고 또 남의 압제를
우리 어른들보다 덜 겪었으니까
꼭지 잘 모르시지마는, 이 세상에

제일은 슬픔은 나라없는 슬픔
입니다. 독립한 제 나라가 없는
민족은, 사나마나한 목숨이랍
니다. 민족을 민족답게 쳐우르
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쳐우르
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조선
독립을 도와준다고는 하나, 그
를 미국사람이 조선사람 때
접하는 법이, 저의 미국사람 때
때 접하듯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나요? 우리는 남의 때 접을
경중으로 받을 위치에 있지 못
한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 분에게 물어 드릴
아무 자적도 없으나, 오죽 한가
리, 나는 여러분보다 독립 못한
민족의 슬픔과 학대를 더 받아
본 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만
약 우리 민족이 앞으로 완전
독립을 못하는 날이면, 우리 자
손인 여러 분들이 또 우리 어
른들과 같이 남의 압박과 학대
와 입수입을 받는, 불쌍한 사
람이 되면 어쩌나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
지 불행하였던 것은 우리에게서
끝나고, 여러분 조카님네들은 자
유롭고 평화롭게, 낙원같은 나
라의 국면이 되어지기를 바라
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는 힘
이 부족하나, 어떤 고생이 있
더라도 노력하고 싶은 정성은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자주독
립 국가의 자유로운 국민되는 길
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나
라를 망했던 원인, 우리가 약했
던 원인, 우리가 남에게 알잡아
보였던 원인을 우리 몸에서 우
리 정신에서 뽑아버리는 그것
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나고요?
우리정신에서 거짓을 뽑고, 우
리행동에서 거짓을 없애는 그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되자. 떠드는 사
람이 되지 말고 진실된 사람이
되자. 나 하나가 진실되면 조선
민족의 삼천만 분의 일은 진
실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열
명이면 삼천만분의 일, 백명 이
면 삼천분의 일, 만명이면 삼십
만분의 일입니다. 이 "소학생"
을 읽는 독자가, 십만명이라하
고, 만명이 거짓없고, 진실되고
충실을 아는 이들이 퍼지면,
이것은 이 민족의 완전독립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결
과가 되는 것입니다. 삼만 여
고 서둘러야 독립은 입사의 일
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
이 모두 참된 정신을 가지는 그
날이야 독립이 있습니다. 어
러 분은 독립을 원하십니까? 자
유로운 국민되기를 원하십니까
? 그렇거든 절대로 거짓을 배
우지 마십시오. 참된 마음을
읽지 마십시오. (끝)

이 할 때는, 비단, 금
수를 팔고, 권력 있
는 사람들은 어우, 너
구리, 팔뚝을 입고,
머리에 쓰는 것은 금
은으로 장식했다."
"고구려"에서는 공회
(公會=어떤이 모이는
회의(會議) 또는 자회)
의 뜻에는, 다 금수(金
龜)에 금 은으로 장식

을 했다."
위에 들은 다섯 가지
말은, 이 글 쓰는 사람
이 매강 주면서 여러 분
이 알아 보도록 평야 모
은 실례(實例)이니, 이
것으로 보면, 비단, 배,
그냥 흰 옷감 등을 만들
었고, 권력있는 사람들
이 입는 옷에는, 비단
뿐만 아니라, 거기다 금
은으로 수를 놓고 장식

을 하였으니, 옛날 조선
사람들이 어만큼 화려로
운 직물을 방직하는 기
술을 가졌던 것을 기억
(記憶)해 두자. (이 후
론 고구려(高句麗) 백제
(百濟), 신라(新羅), 고려
(高麗), 조선(朝鮮)으로
서대를 구분해서 우리
나라 과학사를 얘기하겠
다.) —계속—
(일머들) 끝에서 얘기

한. 방주라고 하는 것
은 꼭 무엇을 찍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것으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기(武
器)로 썼으리라고도 한
다. 또 그것은 고기잡이
그물 밑에 그물이 뜨지 않
고, 가라앉게 어망수(漁
網繩)로 사용된 것도 있
었던 것을 불어어 말해
준다.

7월 10일
서동지
김 용희



73. 이 때 백호산군은 사건이 일어나서 화풀이 나던 차에, 다림위의 고소장을 보고 곧 다림위를 불러 불렀다. 당상에 놓이 있던 백호산군은, 기뻐이나 무서운 얼굴에 더욱 위엄을 가추어 가지고.
“어디 사실대로 얘기해 봐라.” 호령조로 분부다.

74. 다림위는 한숨 돌을 자르려드려고, 그러나 목소리를 가라잡아서
“네, 뭐 알아야 거짓말을 겁히 여쭙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 전 소인의 집에 수 십여 명씩 패기 들어와, 한 겨울 먹을 양식 십여 점을 도둑해 갔습니다.”

75. 백호산군은 우선 놀라며 제편 몸을 흔들었다. 그래 그 불한당 따들 알지 못해?
“네 바로 원래종 사는 스동지 일당이었습니다.” “뭐이? 스동지란놈이! 어찌지 요새 흥청거린다는 소문이 풀려다니...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76. 백호산군의 추궁 질문은 본부에 오수리와 너구리의 두 형제는 심이 나서 스동지를 잡으러 간다. 오수리가 입을 열었다.
“그 종 일당에 저런스런게 굴다니... 이번에 목숨이 죽을 보이지.”
어느덧 스동지 일당에 이르러 소리를 불렀다.

77. 스동지 일당이 꾸미며 여러 많은 형들이 소리를 듣고 나가 찾아와, 그 일당자의 놀란 기색으로 꾸어 물어라 그 뜻하게 고한다.
“대길 만일 보습나나, 중간에 형들 말이 겁박사냥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8. 스동지도 결국 보습나나, 그 긴 말이 없으므로 도도한 경한 낯빛을 띠 가지고 온몸으로 나아가며, 그러고 형들에게 인질로 인사를 하였다.
“오라간만이 순사어, 어떻게 이렇게 찾아 오셨습니까? 우선 주우하시나라 힘으로 물어가지요.”

78. 아까부터 벨르턴 오수리가 썩 나서
“도둑놈을 앞에 두고 어디로 들어 기린 말이야? 어림없는 수작 말고 포승을 받아라, 너 이제도 주꾸를 행태 나?”

하고 오수리는 사뭇 달려들어 형은 모른는 스동지를 묶으려고 서둘렀다.

80. 이 때 옆에 섰던 너구리 형제는 좀 능청스러워 오수리를 슬러말리면서
“중간 이렇게 사두들게 없어, 서동지 영감도 일만한 분이야, 영감 어떤던 도둑으로 체포당이 내렸으나까 우려를 원망 미치고 형님소인 함께 잡시다.”

81. 서동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도 분수기 있지, 하필 도둑놈명을 쓰고 불러 가다니, 그러나 행방소로 가 보면 알 일이지니 하고 순순히 오수리 포승 줄에 묶이였다. 뒷 부에 번고을 당한 서동지 집안은 울을 잔이다



82. 서동지는 숨을 달래이며 형방소로 당도하여 보나, 뜻밖에 다림위가 조그리고 앉아 있었다.
“용거니 요며의 농간이로구나.” 서동지는 이미 사건의 비유를 짐작하게 되어 마음을 놓았으며, 자기조그 자락에서 고소장을 써 바쳤다.

83. 스동지와 다림위는 이윽고 재판관 백호산군 앞으로 나가 가서 공문을 받게 되었다. 일으로 형편들이 없었는데, 사상은 사기요, 깊은 걸사겨 신대지는 매질군이였다.
“서동지야 이 종, 네 죄상을 따르대로 하였다!” 백호산군의 호령이 내렸다.

84.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백호산군의 호령이 보으나, 서동지는 그래도 태연히 대답한다.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현명하신 신군께서는 믿게 살피소서.” 하고 나라에서 상을 내린데서부터 다림위와 그 관계까지 전부들





83. 저세간의 아이기러였다. 스물
진의 말을 듣기를 마 한 뽕
술사구루, 선동지의 인척에 못내
탄복하였다. 나이에 장을 세워
바른까지 말은 신봉으로서, 무
엇이 부족해서 도둑질을 하라
무 아예. 있어서 다람쥐의 모란
이란 것이 안보되었다.



88. 다람쥐를 붙잡아야 는 잘
검사는, 피가 머머 끝까지 운
마서 이단이다. 선동지가 이
광경을 보고 질다 못하여 다
람쥐를 나무란다.
"이 사람이, 중시 믿음을 고
치지 못하고 그따위 짓을 한
단 말인가? 정신을 좀 차
리게..."



86. 뽕술사구루는 즉시 단장을 내
었다. 보나마나 선동지의 과가
말하인 파산, 다람쥐는 도리어
부끄러움 입고 기묘한 말을 받
게 되었다. 그 때 선동지는 다
람쥐의 소망에 귀담스럽긴 하
였지만, 한 번 불쌍하여 오히
려 용서를 청했다.



89. 선동지는 먼저 다람쥐를 엄
숙히 꾸짖어 놓았아서, 뽕 술
사를 건네어 보아,
"비록 소위는 재갈하오니 경
상이 기묘하오나, 한 번만 용
서를 바랍니다"



87. 그러나 형제소의 경기는 자
못 할라하여, 용서할 기미가 보
이지 않았다. 다람쥐는 부끄러
운 짓을 하여 놓고 후회하였소
나, 말은 이미 당하고, 말았소
나 큰 일이었어. 눈치를 살살
보면 다람쥐는 도둑을 소리구
가 도리어 붙잡았다.



90. 하고 말마디를 시켜 가
지고 옥에다 집어 넣은 후,
일처럼 할 자물쇠를 깨어 버
렸다.
옥에 갇힌 다람쥐는 창살 문
으로 밖을 내다보나, 그제가
새삼스럽게 바깥 세상이 그리
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세가 한 없이 서글웠다.

84. 뽕술사구루는 아무 죄 없이
부스끼까지 못어 죄인 선동지
에게 위로의 말을 하였다.
"다람쥐가, 뽕 술사구루의 비
석 때문에 옥을 보았구려. 영
간지 공화를 모르고 도리어
영어 서우려들다니 고만하리
은 극형에 처하겠소."



85. 마음의 너그러운 선동지가
다람쥐를 한 번만 용서 해 주
려고 뽕술사구루를 자꾸 졸라 쳐
우 다람쥐는 죽음을 도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다
람쥐는, 그만 마음이 겁쟁되어
다니는 그대시 말했다고 눈물
뜨며 사죄를 하였다.



86. 말과 안있다가 다람쥐는 영
장으로 돌려 나왔다.
"이제 이제 아이 경을 치
라 보라." 다람쥐는 간이 공
안하여 가지고 있었더니,
뽕 술 보가면에도 뽕술사구루 생
긴 때쯤엔 신돼시 죽었지. 큰
일이지 않겠고 당장에 죽일 권
하다.



87. 선동지는 머리를 끄덕거리
며,
"말을 잘먹으면 본래 약한 사
람이 없는 법일지. 각비도 인
제보의 내게 와서 일을 하
게."



88. 다람쥐는 정신이 아득하여
방망 죽는 사방을 하며
"사람 살리우! 사람이 사람
살리우!"
소리 치며, 등부림이다. 신돼시
의 말이 하마 내려 오라 할
때, 사슴 서기가 "중시! 중간
중시!" 하고 울라기 내달았
다.



89. 그러하여 다람쥐는 얼른 사
인코라 알 채를 먹고, 정지
이 다람쥐는 황제를 먹고 집
으로 향하니, 마음을 나온 가
죽음이 기해 날뛰었다.
그 후부터 다람쥐는 마을을
고쳐, 선동지가 떠어 준 땅
을 가지고, 농사 짓기에 보지런
하였다. (끝)





★ 바위 속에 있는 절 ★

절이라 하면 땅 위나 공기 중에 깨끗한 장소에 세우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오마에는 땅 속을 파고 만든 절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바위에 줄을 파서 지은 절도 있습니다. 그것도 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곳에 30 몇 개씩이나 나란히 있는 것이나

늘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아판타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판타아의 굴 속 절에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이 백마다 많이 그려져 있으며, 이것이 또한 3000년 전의 그림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드래치 이 인도라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도 영국의 식민지로 압박을 받아왔지만,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을

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 6백여년 전 옛날, 석가모니 라는 위대한 왕자가 있어, 어떻게 하면 괴로운 사람들을 구하여 즐겁게 이 세상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수십년을 산 속에서 모를 닦은 결과 불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불교는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에까지 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 2000수백년



동안에 많은 큰 절과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도 마우라의 절은 높은 탑이 아름답게나 있고, 제일 큰 탑은 높이가 273미터가량이고, 넓이는 224미터 가량이 다 되어, 에집트의 피라미드의 2배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한 인도의 아판타아의 절은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지 이삼백년 후부터 800년이란 오랜 동안, 많은 중들이 단단한 바위를 자기들 손으로 파고, 그 속을 장식 또

는 그림을 사서, 이 세상에 볼모 없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절을 만들었다 합니다. 옛날에는 물론 인도 뿐만 아니라, 중국 또는 그보다도 더 먼 나라에서도 찾아와, 몇백년 이 바위굴 속의 절에서 모를 닦는 공부를 하였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속의 그림이 대단히 훌륭하여, 세계의 미술가들이, 그 빛과 모양을 베껴느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절 사이가 없다고 합니다.

새소식

국제 연합 총회 드디어 개막 —세계 인류는 평화를 바란다—

지난 9월 21일 파리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 연합 총회는 열렸다. 전쟁이 끝난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바라는 평화는 오지 않고, 세계 구석구석에선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 연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다. 우리는 모든 세계 문제가 하루바삐 해결되어, 온 인류가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총회에 대해서도 철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우리 한국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매우 궁금한 일이다.

충남 서천에 탄광 발견

충남 서천군에서 매경광 1억 톤이나 되는 큰 탄장이 발견되어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전이 아주 좋은 부원함으로써, 넓이 20 내지 40 미터, 높이 40 내지 60 미터의 탄층이 되어 있고, 또 특

연도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의 하나이다.

해외소식

★일본 동경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와 같이 일제 밑에서 신음하던 매만(臺灣)은, 전쟁이 끝나자 다시 중국 영토로 되

있는데, 일본에 남아 있는 매만 사람들은, 매만 독립을 해야 한다고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한다.

★일본이 동양을 모두 장악하려 하고 만물이 좋은, 소위 만주국에서 리수아비 황제도 뜻을 하던 부리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소식에 의하면, 전쟁이 끝나자, 그 아우와 함께 어떤 천 만주국 관리들과 함께 소련-라바르프스크라는 곳으로 끌려가 갇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다른 포로와 같이 일은 시키지 않으며, 독서와 일본 장기 등으로 날을 보내고, 또는 나무와 배로 끝무 같은 것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과학 공부



少年三国志

박태원 지음
김기창 그림

제 7 장 원소 부자 (袁紹父子) 1

一. 허유 (許攸)

한편, 원소는, 손책의 위를 이어서 선 손권이, 자기와는 왕대를 끊고 도리어 조조와 맺었다는 말을 듣자 크게 노하였다.

그는 자기 혼자서라도 군사를 일으키어 조조를 무찌르고, 다음에 손권을 치기로 마음에 정하였다.

수하의 모사들은 극력으론 간하였다.

그러나 원소는 그들의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칠십만의 대병(大兵)을 일으키어, 양무(陽武)로 나가서 영채를 세우니, 깃발은 들을 떨고, 창과 칼은 햇빛을 가리어 구름위에 뻗었다.

이 급보(急報)를 받자, 조조는 곧 모사 손숙으로 허모를 지키게 하고, 군사 칠만을 일으키어 관포(官渡)로 나갔다.

그러나 칠십만과 칠만, 원소와 조조의 군세(軍勢)는 꼭 십대일(十對一)이다.

조조의 군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겁부터 집어 먹으니, 조조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지 않고, 모사들을 모아 상의하였다.

그러나 손유는 말한다.

“원소의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우리편은 모두가 날래고 용명한 군사를 뿐이라, 넉넉히 하나으로써 열을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반드시 급히 싸

워야만 이로운 것이요, 만약에 날자를 끌었다가는 크게 불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말을 좇아, 군중(軍中)에 영을 내리고 급히 나가 싸우게 하였다.

그러나 원소 수하에도 싸움에 능한 모사가 있었다. 급히 싸움을 제촉하는 조조의 군사를 죽기 위해 막아 내어 조급모 물러가지 않으니, 조조는 관포에 대군을 치고 원소와 서로 대판지간 말이 지나자, 군사들의 기운은 차차 쇠잔하여지고, 군량(軍糧)은 마침내 떨어져 버린다.

조조는 곧 사자를 허모로 보내어, 속히 군량을 보내라 명하였다.

그러나 사자는 삼십리길을 못다 가서 마침내 원소의 군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군사들이 조조의 사자를 걸락지어 모사 허유(許攸)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 허유는 일찍이 조조와 친하게 지낸 일이 있는 사람이다.

사자의 몸을 살살이 뒤져 보니, 마침내 조조가 군량을 제촉하는 서찰이 나온다.

허유는 곧 원소를 들어가 보고 말하였다.

“조조가 지금 관포에 군사들을 둔치고 있어, 허모가 덩 비어



있는 터이니, 우리가 만약 군사를 나누어 가만히 희모를 들이친다 하면 반드시 공을 이룰 것입니다. 더구나 조조의 군량이 이미 떨어졌다고 하니, 이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조조는 피가 원채 많은 사람이라, 이 서신도 혹은 나를 꼬이 내려고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

그래도 허유가,

“아닙니다. 부디 적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제삼 권하여 마지 않을 때, 이 보다 앞서, 업군(鄴郡)으로 돌아가서 군량을 감독하고 있던 모사 심액(審配)에게서 사람이 와, 군량을 올린다.

원소가 받아서 펴 보니, 처음에 군량에 관한 사연이 써어 있고, 다음에, 허유가 전에 기주(冀州)에 있을 때, 그 아들과 조카들로부터 더불어 함부로 백성들의 재물을 겁탈(劫掠)하던 일이 요약을 들어나서, 이번에 그 아들과 조카들 옥에 가두었노라 하는 말이 적혀 있다.

모고 나자 원소는 크게 노하여, 큰 소리를 가다듬어 허유를 꾸짖었다.

“이 행실 부정한 놈이 무슨 낯을 쳐놓고, 바루 내 앞에서 재고들 드리려 한단 말이나? 내가 본래 조조와 친한 터이라, 그때 몰래 조조의 뇌물을 받아 먹고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겠지! 내 마땅히 너의 목

을 벨 것이지만 특히 용서하여 주는 터이니 새 풀러 나가라!”

허유는 지극한 무안을 당하고 밖으로 나왔다.

(대체 어떻게 하여야 좋을꼬? ...)

그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아주 원소를 버리고 조조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는 것이 좋겠다. 마음 먹고, 드디어 남몰래 원소의 영채를 벗어나 나갔다.

이 때, 조조는 대채(大寨)에서 옷을 벗고 마약 잠이 들려고 하더니, 문득 군사 하나이 들어와서 허유란 사람이 찾아 왔다고 보한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옷을 대강 벗어 입자, 미처 신발도 못 찾아 신고 분주히 달려 나가, 그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어 들이고, 자기가 먼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허유가 깜짝 놀라 황망히 그를 잡아 일으키며 묻는다.

“공은 지위가 승상(丞相)으로 지극히 귀하실 몸이요, 이 사람은 일개 포의(布衣)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지요?”

조조는 말하였다.

“공은 옛날 내 친한 벗인데, 어떻게 벼슬을 가지고 상하(上下)를 가리겠소?”

“내가 주인을 그들쯤 몰라서 그동안 원소에게 있다가, 하도 그가 내 말을 들어 주지 않거니와, 마침내 그를 버리고 어떻게 온 터이니, 공은 부디 수하에다 건우어 주오.”

“이처럼 나를 찾아 주시니 이만 다행이 없구로. 부디 원소 재질 재고들 일러 주오.”

그러나 허유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안하고 한아미 묻는다.

“먼저 한 가지 물어 볼 일이 있소. 대체 지금 군량은 얼마나 남아 있소?”

“아마 앞으로 일년 먹을 것은 될까 보오.”

“일년? 모루지 물어 들리지 않소.”

“일년은 어렵겠지만 반년은 넉넉할까 보오.”

그 말에 허유는 소매를 찢고 밀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권정으로써 찾아 왔건만, 공은 이처럼 나를 속이려고만 하니, 어디 믿고 지내겠소?”

공 장막 밖으로 나가려 하니, 조조는 황망히 그의 소매를 잡고 달린다.

“부디 노여워 마오. 내 실상대

이걸 참 심상

만년필 쓰는데 알아 둘일

1. 만년필은 쓰지 않을 때에도 잉크를 잘 넣어주십시오. 속에 물기가 없으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2. 만년필을 펴고 같이 잉크를 적어가면서 쓰면 잉크 나오는 구멍이 막히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로 말씀하러다. 지금 군중에 남은 양식이 사흘인즉 석달은 지탱할까 보오.”

허 유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세상에서 모두들 조조를 간웅(姦雄)이라 하더니, 과연 이르군!”

조조도 같이 웃으며, “병법(兵法)에는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말도 못들었소?”

드디어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실상인즉 이달 한달 먹을 양식 밖에는 남지 않았소.”

가만히 일러주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허 유는 소리를 높여,

“네가 나는 못속이는 니라! 군량이 벌써 떨어진지 오래지!”

조조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것은 대체 어떻게 알았소?”

허 유는 그제야 품 속 으로서 조조가 허도로 보내는 저신을 꺼내서 보이고, 자자 잡은 이야기를 하였다.

조조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은근히 칭하였다.

“공은 부디 좋은 제교를 일러 주오.”

허 유가 말한다.

“월 소의 군량과 치중(輜重)이 곽하 오소(烏巢)에 있소. 지금 순우 경(淳于瓊)이라는 장수가 그곳을 지키고 있으나, 연일 술만 먹고 별로이 방비를 알하는 터이니, 공은 곧 군사를

보내서 그 군량과 치중을 불살라 버리도록 하시오. 그렇게 되면 월 소의 군사가 사흘이 못가서 제풀에 어찌러우리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자기 가 몸소 군사를 이끌고 오소로 가서 월 소의 군량과 치중을 모조리 불살라 버린 다음, 곧 다시 군사를 들이키어 월 소의 영지를 들이쳤다.

아무 방비가 없었던 월 소는



마침내 크게 깨하여 겨우 팔백여명 군사를 데리고 강을 건너 도망하였다.

이 싸움에 조조는 또 월 소 수하의 이름 있는 장수, 장합(張郃)과 고람(高覽)을 항복 받았다.

二. 십면매복계 (十面埋伏計)

관도 싸움에 크게 깨하고 기주

로 돌아간 월 소는, 마음이 갈팡하여 당장은 정사로 삼피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모양을 보고 그의 아내 유씨(劉氏)는 그에게 하루 바빠 후사(後嗣)를 정하라고 제책이다.

본래 월 소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어, 맏아들 원담(袁譚)은 나가서 청주(靑州)를 지키고 있고, 둘째아들 원희(袁熙)는 나가서 유주(幽州)를 지키고 있는 터에,

홀로 끝의 아들 원상(袁尙)만 자기 곁에 가까이 두어 두었으니, 이 원상은 바로 후처(後妻) 유씨의 소생으로, 월 소가 삼형제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유씨가 저의 몸에서 나온 원상으로 남침의 위를 이르게 하고 싶어, 이제까지도 여러 차례 말이 있었고, 월 소도 또한 은근히 그러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모사(謀士)를 불러서 이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모사 가운데서 설배(審配)와 봉기(逢紀) 두 사람은 월 상평을

들어도, 신평(辛評)과 곽도(郭圖) 두 사람은 맏아들을 제쳐 놓고, 끝의 아들로 후사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원담을 제우기로 극력 주장한다.

월 소가 마음에 주저하여 얼른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중 군사가 들어 와 보하되, 원담은 군사 오만을 거느리고 청주로부터 오고, 원희는 군사 육만을 이끌고 유주(幽州)로부터 오며, 장

장관은 고 간(高幹)도 또한 군사 요인을 데리고 병주(并州)로 부러 와서, 힘을 합하여 조 조와 조 조 싸우려 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원 소는 마음에 기꺼워, 후사 정하는 일은 뒤로 밀고 즉시 자기도 군사를 다시 정비하여 창성(倉亭)으로 나가서 정세를 제쳤다.

이것을 보고 조 조가 모사들에게 원 소에게서 계교를 물으니, 정육이 나서서 "십면매복계(十面埋伏計)"를 말한다.

음, 군사를 십대(十隊)로 나누어 강변에다 매복하여 두고, 원 소를 띄워서 강가로 이르게 하여, 우리 군사가 더 물러갈 길이 없고 보면, 그때는 반드시 발길을 돌리이 죽기까지 적병을 물리칠 것이니, 이러하면 원 소를 이기기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조 조는 그 계교를 좇아, 좌우를 각각 오대로 나누니, 좌편의 일대는 하후 돈(夏侯惇)이요, 이때는 장 요(張遼)요, 삼매는 이 천(李典)이요, 사매는 악 진(樂進)이요, 오매는 하후 연(夏侯淵)이며, 우편의 일대는 조 홍(曹洪)이요, 이때는 장 합(張郃)이요, 삼매는 서 광(徐晃)이요, 사매는 우 금(于禁)이요, 오매는 고 람(高覽)이다.

어느날, 이 십대 군사를 먼저 보내서 좌우에 매복하게 한 다음 밤이 깊기를 기다리어 조 조가 원 소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나가, 기장 검재(魏寨)하는 형세를 보이게 하니, 원 소는 이것이 계교임을 모르고 군사를 모조리 휘몰아 밀려 나온다.

원 소는 곧 군사를 물리키어 강

을 바라보고 말했다. 원 소가 군사를 휘몰아 그 휘를 급히 쫓는다.

그때로 늦기어 날이 흰하게 밝을 무렵에 강변에까지 이르니, 이제는 다시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

이리 조 조는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제 앞에 강이 막히어 더 나아갈 길이 없으니, 너희들은 한번 죽기로 찍워 보지 않겠느냐?"

영이 한번 전하여지자, 군사들은 곧 몸을 돌리키어 뒤쫓는 원 소 군사에게도 달려 들었다.

죽을 곳에 몸을 두고, 살 길을 구하려는 형세가 심히 날카로웠다.

원 소가 그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급히 퇴군명(退軍令)을 내리고 말머리를 돌리어 달아날 때, 문득 북소리 크게 울리는 곳에 좌편의 하후 연과 우편의 고 람이 각각 군사를 몰아 나온다.

원 소는 크게 놀라, 속기까지 혈로(血路)를 뚫고 달음 달렸다.

그러나 심리를 못다 가서 좌편의 악 진과 우편의 우 금이 밀어 나오므로, 또다시 소리를 못다 해서 좌편의 이 천과 우편의 서 광이 군사를 몰아 나오니, 원 소부처는 혼이 허공에 떠서 간신히 목숨을 모방하여 본래로 물러갔다.

그러나 원 소가 계군(敗軍)을 수습하여 말도 짓제하고, 모든 군사들이 마악 젓가락을 물러할 때, 다시 좌편의 장 요와 우편의 장 합이 군사를 휘몰아 쫓아 온다.

원 소는 황망히 다시 달음 달다, 창성을 바라보고 달아났다.

그러나 역시 얼마 안가서 우편의 조 홍과 좌편의 하후 돈이 군사를 몰고 나와, 닥 앞편을 가로 막는다.

원 소는 크게 부르짖었다.

동요 고 양 이 박 병 업

양지쪽에 고양이
실모더들요

도글도글 혼자서
굴리다가요

아기보고 같이서
굴리자고요

남질남질 두키로
부른답니다.



그림·정 현웅

“만약 죽기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말 것이 아니냐?”

기운을 가다듬고 좌충우돌(左衝右突)하여 간신히 에움을 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둘째아들 원 희와 셋째아들 원 상이 모두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고, 군사들의 죽고 상한 것이 열에 아홉이다.

원 소는 새 아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바탕 목을 놓아痛哭하다가, 그대로 땅에가 혼절(昏絶)하여 버렸다.

모든 사람이 급히 구하여 열으켜니, 원 소는 열으로 붉은 피를 토하고,

“내 어제까지 수 없이 싸웠으나, 일찍이 어떻게 낭패한 적이 없었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시는데 있다!”

한숨 짓기를 마지 않으며, 원

담 원 희 고 같은 자기 본주(本州)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끝의 아들 원 상을 데리고 기 주로 들어 가서 병을 조리하였다.

三. 유 비 의 거 (劉備義舉)

조 조가 창 성에서 크게 이기고 다시 원 소의 뒤를 쫓아 앞으로 나가려 할 때, 문득 허 도를 지키고 있는 순 욱에게서 급보가 왔다.

“유 비가 여 남(汝南)에서 수만의 군사를 얻어, 승상께서 출정(出征)하고 아녀 제신 틈을 타서 허 도를 엄습(掩襲)하려 하니, 승상은 속히 회군(回軍)하시어, 이를 막도록 하소서.” 하는 것이다.

조 조는 크게 놀라, 즉시 대군을 거느리고 여 남으로 유 비를 막으러 떠났다.

이 때 허 도는 관 후 장 비의 무리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허 도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양 산(襄山) 근처에서 조 조의 군사와 마주쳤다.

양편 군사가 서로 진 치고 매하는 마당에, 조 조가 허 도를 쫓아 나가 싸우게 하니, 허 도는 조 운에게 명하여 이를 막게 한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울어져 싸우기 삼십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나누지 못할 때, 갑자기 합성이 쉰지를 뒤흔들며 동남편으로서 관 운장이 군사를 몰아 나오고, 서남편으로서 장 비가 군사를 몰아 나와, 삼군이 일제히 들이치니, 본래 조 조의 군사는 멀리 와서 군사나 말이 다 함께 곤한 터이라, 마침내 크게 패하여 수십리 물러 갔다. 이튿날, 허 도는 다



서 조 운을 내어 보내어 썩음을
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인 조
발인지 조 조의 군사는 그 뒤 열
흘이 지나도록 나와서 유리라 하
지 않는다.

원덕이 속으로 의심하기를 마
지 않을 때, 관 윤보가 물어 왔
다. 우리 전의 군량을 운한하여
왔던 부리가, 중보에서 조 조 군
사에게 대을 바 되었다 라는 것
이다.

원덕이 왕의 장 비를 보내서 구
려게 하였더니, 다시 탐마(探馬)
가 보라기를 하후 본이 군사를
이끌고 뒤로 돌아가 여남을 물어
지러 원라고 한다.

원덕은 소 소마치게 술랐다.
“원 덕 여남을 백짓전다면, 나
는 알 뒤로 적명을 받아, 물아
갈 곳이 없게 되지 않느냐?”
숙시 윤장을 여남으로 보냈으
나, 다음날 탐마는 다시 보라기
를, 여남성은 이미 함몰되고, 관
윤장은 조 조 군사에게 대을 바
되었다 하며, 그 뒤를 이어 소 식
이 물러기를, 장 비도 모리어 조
조 군사의 대을 속에 들어, 지금
그 형제가 심히 위태모습이라고 한
다.

원덕은 하는 수 없어, 그 밤이
원히 밤기를 기다리어 군사들을
백 물러 먹인 다음에, 보군(步
軍)을 앞세우고 마군(馬軍)을 뒤
따르게 하여, 조 윤과 함께 영 적
을 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썩음에 승한 조 조는 이
미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
하고, 유 비의 물아가는 길을 파
아, 산 머리에 다 군사를 배부하여
두었다.

탐마 말 썩음에 크게 제하고,
마침내 원 덕은 조 윤과 함께 관

심히 대
음을 물
고 말을
달리었다
뒤 따르
는 군 사
가 머 치
천 명이
다 못 진
다.

길을 찾
아 나 가
는 중 에
원 덕 의
가 솔 (家
率)을 보
오 리 어 가
지 고 여
남 성 을
백 쳐 나 은
손 전 의
무 리 들 을
만 나 고,
다 시 알
으 르 나
갈 때,

관 윤 와 장 비 가 적 군 을 수 습 라
여 그 의 뒤 를 찾 아 이 르 되 다.

원 덕 은 조 조 의 군 사 가 더 뒤 를
쫓 으 르 어 안 하 는 것 을 눈 치 제 고,
강 변 에 이 르 며 잠 시 원 이 가 기 르
라 였 다.

그곳 백 성 들 이 그 들 유 원 덕 이
라 알 자, 물 살 과 고 기 를 바 물 이
을 린 다.

원 덕 은 수 하 경 수 들 과 강 가 모
태 관 에 앉 아 서 술 잔 을 들 며 길 게
한 숨 을 쉬 었 다.

“그 대 들 이 모 두 비 상 한 제 주 를
가 지 고 있 전 만, 오 직 이 유 비
를 따 르 기 가 불 행 이 요 그 러. 네



원 덕 가 하 도 기 바 하 여 그 대 를
애 제 까 지 적 모 음 을 꺼 쳐 고, 오
늘 날 에 는 이 렇 듯 몸 불 일 못 조
차 없 이 되 었 으 니, 그 대 들 은
부 디 나 를 바 리 고 달 리 영 목 한
주 인 을 찾 아 가 서 공 명 (功名)
을 이 루 르 르 하 오.

그 말 이 너 무 나 비 감 (悲感) 하
여, 모 든 사 람 이 얼 굴 들 을 가 리
고 우 니, 이 때 관 윤 장 은 계 연
(慨然) 히 나 서 서 한 다 더 한 다.

“원 덕 말 씀 이 올 저 않 으 십 니다,
애 전 에 관 고 조 (漢高祖) 를 서 항
우 (項羽) 와 전 하 를 다 투 실 때,
그 대 게 어 러 자 리 나 제 하 셨 어

“또, 뒤에 구리산(九里山) 한 번 싸움에 공을 이루시어, 마침내 사백년 기업을 여신 터가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에 항용 있는 일인데, 그렇게 낙심하실 것이 아닙니다.”

손 건이 또 말한다.

“여기서 형주(刑州)가 멀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유정군은, 주공과 한가지로 한실 종친인 터이니, 그리로 가서서 잠시 몸을 의탁하도록 하시지요.”

현덕이 그 말을 좇기로 하자, 손 건은 그길로 밤을 드아, 먼저 형주로 가서 유 표(劉表)를 보고 말하였다.

“저의 주공은 천하 영웅이십니다. 지금 비록 수하에 군사는 적어도, 품고 계신 뜻은 항상 천하 백성들을 구하려 하시는 터에, 이번에 조 조에게 쫓히시자, 강동으로 나가서 몸을 의탁하여 볼까 하시기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형주에 같은 한실 종친이신 유정군께서 계신 터에, 구태어 강동

으로 남을 바라고 찾아 가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때 우리 주공께서 이처럼 저를 보내시어 장군께 말씀을 사퇴게 하신 것입니다.”

말을 듣자 유 표는 크게 기뻐하여 곧 나가서 유 비를 맞아 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유 표의 처남되는 채 모(蔡瑁)가 참소(讒訴)한다.

“올지 않습니다. 유 비란 위인이 처음에는 어 포를 쫓다가 다음에는 조 조를 섬겼고, 근자에는 도 원 스에게로 갔다가, 드 다시 그를 배반하고 나왔으니, 이것만 보아도 족히 그 사람됨을 짐작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그를 용납하셨다가는 조 조가 반드시 우리 형주를 치려 할 것이니, 곧, 저 손 건의 머리를 베어다 조 조에게 바치느니만 못할까 합니다.”

결에서 그 말을 듣자, 손 건은 정색을 하고 한마디 하였다.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리가 아니요. 우리 주공께서 전에 조 조·원 소의 무리를 따

르진 것은 모두가 부끄러운 노릇이지 결코 본의아니시었소. 이제 동종(同宗)의 정의를 생각하시어 천리길을 떠나 안하시오. 이렇듯 유정군을 찾아 비오려 하시는 터에, 이렇듯 참소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인 까닭이요?”

정당한 수작에, 유 표도 채 모를 꾸짖어 물리치고 마침내 그는 형주성 삼십리 밖까지 몸소 나가서, 정중하게 현덕을 맞아 들었다.

이리하여 현덕은 기구한 운명이 이번에는 유 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다.

—계속—

소년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군량(軍糧)……군대의 양식.

▲대채(大寨)……대장이 들어 있는 영채.

▲포의(布衣)……벼슬이 없는 전비.

▲지탱……오래 버티어 가는 것.

▲치중(輕重)……군대의 군수품.

다니던 사람야, 알았나?(서울 단산교 6년 이 익종)

★ 구 명

막둥이……어머니 내 장화쯤 보세 요. 구명이 나서 불이 자꾸 들어와요.

어머니……저런, 그러면 물 버질 구멍을 하나 더 뚫어 주더 무나. (서울 창신교 5년 진 영덕)



★ 진 화 론

아들……아버지, 사람은 맨처음에 원숭이었다지요?

아버지……그렇단다.

아들……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동물원에 있더 오셨습니까?



아버지……? (서울 창신교 4년 최 정일)

★ 경험 많은 사람들

자동차로 사람을 치운 운전수가,



운전수……당신이 주의를 못하였오. 나는 운전수노릇을 7년 동안이나 한 사람입니다.

자동차에 친 사람……그게 무슨 말야. 7년이 무엇이 장하다고, 나는 벌써 42년 동안이나 걸이

▲후작(後嗣)……대(代)를 잇는 자식.

▲퇴군령(退軍令)……군사를 뒤로 물리는 영.

▲혈로(血路)……애상을 헤치고 벗어나는 길.

▲좌충우돌(左衝右突)……이리저리도 벽으로 다닥뜨리는 것.

▲혼절(昏絶)……정신을 잃고 숨이 끊어지는 것.

▲본주(本州)……말아서 다스리는 포수.

▲회군(回軍)……군사를 물리키는 것.

▲탐마(探馬)……적군의 사정을 수탐하는 군사.

▲가솔(家率)……집안 식구.

▲비감(悲感)……슬프게 느끼는 것.

▲개연(慨然)히…… 슬퍼하는 모양.

▲관소(關所)……어무니 없는 사설로 남을 험에서 말하는 것.

▲정색(正色)……얼굴 빛을 바르게 하는 것.

▲동종(同宗)……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



집은 더위나 추위, 혹은 비, 바람을 막기 위하여 짓고사는 것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의 집은, 땅이나 바위를 파서 만든 굴집이었으나, 얼마 안있어 사람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살기 편하고 또 기후에 맞는 여러 가지 집을 세웠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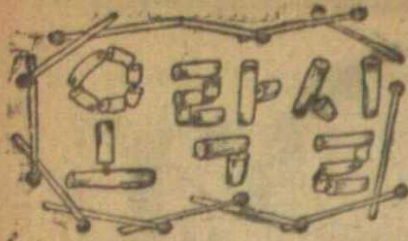
따뜻한 나라의 작은 나무숲이나 풀숲 속은 물론, 나무숲 속의 대지(台地)……물과 흙을 높이 쌓아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까지도 사용(使用)한 것 같습니다. 눈집, 가죽으로 만든 천막집, 나무집집이나 가죽으로 만든 북미(北美) 토인의 집, 풀로 만든 집 등, 이런 것들은 모두 고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고대(古代) 에gypt사람이나 파비로니아 사람들은,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흙과 짚을 합쳐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었습니다. 안푸리카, 아세아, 그리고 미국의 굴집들은 돌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몽고족(蒙古族)은

집승의 털로 담요를 짜서, 그것으로 살을 에이는듯한 찬 바람을 막는 등그런 집을 만들었고, 아라비아족은 뜨거운 햇빛과 모래로부터 자기네들을 막는 천막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사는 것을 즐겨하는 남쪽의 토인들은, 물 속에 알뚝을 박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으며, 동양 사람은 나무, 벽, 혹은 종이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으며, 때로는 벽돌, 돌 등으로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집들은 여러 가지 재료로 지어집니다. 나무, 벽돌, 돌, 강철, 콘크리트부록크, 기와, 철편(鐵片), 유리 등을 사용하며, 지붕은 자갈, 흙, 기와, 판석(板石), 타이루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집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사람을 막아 주며, 또한 이 집들은 나무, 석탄, 가스, 기름 등으로 더울게 하며, 때때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들어서 시원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 결장 그림 설명)

이화여자대학교수
김 메리 선생 지은
어린이 피아노책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 쉽고 빠르게 피아니스트가 되는 좋은 교습서. **김 의환** 선생의 그림이 모인 재미있습니다.
책값 300 원
아협 발행



과학 장난
이상한 팽이

바깥에서는 조금도 힘을 주지 않는데, 저 혼자 얼마든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이 바퀴의 이상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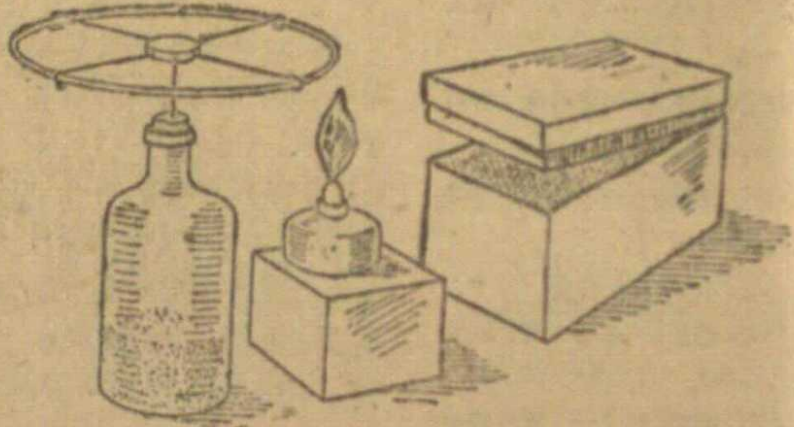
먼저 우유병이든 또는 술병이든 아무 것이나 좋으니까, 여기 다 한 가량 모래를 집어 넣고, 다음에는 바퀴를 만든다. 바퀴는 직경 6cm 가량으로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고, 또 그 바퀴는 구리(銅)철사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퀴의 중심이 되는 바퀴의 축(軸)은, 둥글게 자른 쿡크(병마개 하는 것)판(板)이든, 얇게 자른 쿡크 병마개로 하고, 이 축의 옆에다 사방으로 구리의 바퀴를 끼운다. 그리고 네 개의 구리철은 각각 끝을 갈퀴모양 구부려서, 얹어 단다. 이것으로 바퀴는 완성이 되었다.

부성냥으로 만든 다리(橋) ★

다음 그림은 성냥으로 만든 다입니다. 이 다리를 보고 흥! 그 까짓 것 하고, 가장 만들기 쉽다 하고 하실 분이 제실는지도 모르고, 또는 보통 성냥으로 그대로는 만들만들어서 미끄러져 못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제실 것입니다.

둘다 일리는 있습니다. 성냥으로 그림과 같이 만들기란 참으로

다음엔 먼저 만들어 둔 모래가 든 병에다, 쿡크 병마개로 보통 병을 막듯 단단하게 틀어 막고, 그 위에다 수직 [(垂直...직선(直線))과 직선이 닿아 직각(直角)을 만드는 상태(狀態)] 으로부터 거의 바늘을 겨우로 세운다. 이때 바늘 귀쪽을 불에다 구어 두면, 쉽게 쿡크마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바늘의 보주한 끝에다



먼저 만든 바퀴의 축을 올려 놓는다. 이때 바퀴가 조금도 비틀어지지 않고 수평(水平...물 위와 같이 평평한 모양)으로 얹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퀴를 만들 때 특별히 주의하여, 바퀴의 밑이 틀어느 것이든 완모양으로 하며, 또 바퀴를 질 수 있는 때까지 원을 만들고, 그리고 병 위의 바늘이

정녕로 수직으로 서 있으면 쉽게 바퀴는 수평으로 바늘 위에 선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알콜램프에다 불을 붙여, 그 불꽃의 끝을 가만히 바퀴의 부분에다 갖다 댈다. 또 열의 상자 속에는 지남침을 넣고 이 지남침 한 쪽의(極端)이 즉 알콜램프의 불꽃의 끝(先端)에 가까운 곳에 있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바

퀴는 먼저 가만히 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점점 빨리 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남침은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차디찬 철(鐵)의 부분을 잡아 당기어, 그 부분이 뜨겁게 되면 잡아당기는 힘, 즉 인력(引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꼭 한번 실험해 보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참고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이 하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냥개비가 아무썽록 네모가 반듯하게 된 것이면 됩니다. 동그스럼한 것은 거의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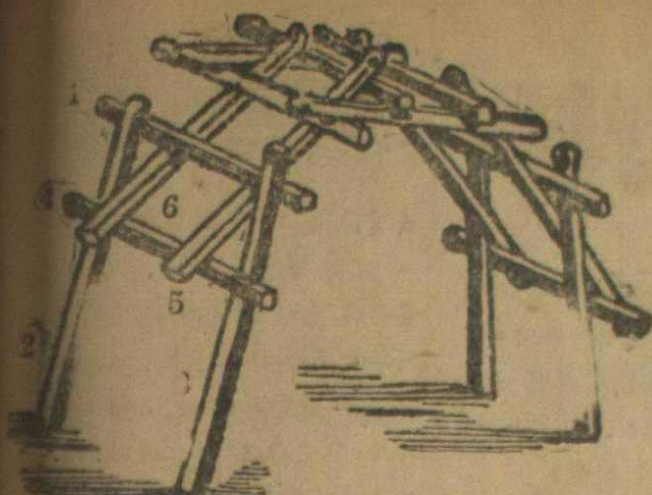
고 해도 관계없지요.

어디 분 중에는 될 수 있다면 잠깐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실 분도 제실지 모르니, 그 첫번 하는 법만 조금 가르쳐 드리지요. 심심할 때, 또는 참고 끝까지 무엇이든 해보려는 인내심(忍耐心)을 길러 보는데 좋은 동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 쓰는 성냥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튼튼하고 굵은 것을 골

분수(噴水) 만드는 법

빈 병에다 물을 조금 넣고, 그림과 같이 병으로부터 더듬게 하면, 병 속의 물은 유리관(管)으로 분수가 되어 뿜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병 속의 공기가 팽창(膨脹……물체(物體)의 길이와 부피가 느는 모양)하여 물을 누르니까, 물이 통(管)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입으로 힘껏 공기를 뿜어 넣고 몇 안간 병 입을 열어도 물이 "식"하고 나옵니다.



하, 위 그림의 왼쪽에 두 개 똑바로 세워 놓은 성냥과, 그 위에 두 개 가로 놓인 것이 짜는 쇠머리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널판이나 책상 위에 한 개의 성냥을 놓는 것인데, 이것이 그림 1로 되는 것입니다. 이 1 위에 2, 3 두 개의 성냥개비를 직각(直角)으로, 또 그 끝을 조금 1에다 얹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2, 3 위에다 십자로 4의 성냥개비를 얹으면, 한쪽에 치우친 "우물정(井)"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1을 살짝 들어, 밑으로부터 5와 6의 두 개를 꽂고, 그 끝을 4에다 걸칩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이번엔 마땅히 두 개로 전체를 들고, 또다시 너의 뒷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어려운 것으로, 이 다음부터는 인내(忍耐)와 지혜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성냥 놓는 법은 그림에 나타나 있으므로,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 만들기까지는 여러번 실패하지만, 만들고 난 뒤에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얼마나 자기가 인내력을 가졌나 시험해 보십시오.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 할아버지, 우리 인사고 뭐고 집어치고 문제부터 풀시다. 지아 준비하세요. 얼굴이 빨갛게 되어 성이 나면 날수록 흰머리가 늘고, 또 성이 나면 날수록 목숨이 짧아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울 협성고 6년 황은식)



(답) 급하진 상당하급한게로군, 그것은 숫불일세. (칙칙박사)

(문) 박사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문제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더 늙으신 것 같군요, 그럴 한 가지, 어느 집에든지 이것만은 공통하게 다 같이 네 개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세계는 합하여, 몇 억만 개가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세지도 단조 배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울 배동고 3년 황경식)

(답) 생각도 같아기는 따랐네, 동, 서, 남, 북, 알아들었나? (칙칙박사)

(문) 나도 귀찮아서 인사는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노력의 마십쇼. 여름에 쓰는 물건으로 두껍은 있고 얇은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맞추십쇼. (강원도 원주 이승호)



(답) 이제 점점 싱거워지는데, 모 기경이지 편가. (칙칙박사)

(문) 초그만 걸 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어떤이 한테 물어, 거품머리를 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요? 뭐와 아입니다. 왜 이렇게 찢찢 매깁니까. (계성 원정 점은희)



(답) 라노 칙칙 배담을 잘라내까 걸들이 난게로군, 인사를 시간도 없이 묻기가 잘라

제, 성냥이라고 하지 않나? (칙칙박사)

소학생 구락부



▲편집부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에 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내 주십시오. 그러면 첫인사 이만 그치겠습니다. (서울 창천 국민교 5의3 김상천)

▲“소학생”을 길러주시는 기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소학생”이 재미 없을 줄 알고 보지 않았었는데, 내 등무에게 빌려 본 후, 재미 있고 유익한 것을 알고 53호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만 있으니 까 염체가 없어, 변변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작품 몇개 보내오니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서울 수송 국민교 3의3 이종구)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날이 매우 선선해져 책과 천할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저희 형제가 이번에 동요를 썼으니, 잘 보셔서 훌륭하거든 “소학생”에 실려 주십시오. 또 상급학교에 입학하고 작품을 내도 편찮다고 하셔서, 저도 작품을 썼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서울 중학 1년 최상선)

▲아현 여러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학급에서는 “학급문고”를 만들어서 이책 저책 특히 아현 발행이란 책은 될 수 있는대로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소학생” 31호부터 45까지 없

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 대책은 없습니까? 꼭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등불인 여러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도 연백 국민교 4년 박인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인제 인사여 줍니다. “소학생”은 받아본 호도 있고 못본 호도 있어 대단히 섭섭합니다. 작문과 동요를 보냈는데 아마 잘안된 모양입니다. 한 번도 나지 않는 것을 보니……나심 않고 자꾸 써서 보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말 도모 찾기”는 때고 다른 것을 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건강을 빌며 붓을 놓겠습니다. (전남 목포 서부 국민교 5년 정재창)

△좋은 작품을 많이 써서 보내 주십시오. “우리 말 도모 찾기”는 9월치에 아주 끝났습니다. (기자)

▲“소학생”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는 “어른 소학생”입니다.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소학생 같이 어려, 귀고 웃고 놀입니다. “어른 소학생”도 작품을 보낼 수 있나요? “소학생 작품”에 평을 써서 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안동 초상국)

△“어른 소학생”도 작품을 낼 수 있습니다. 작품평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중입니다. (기자)

★길을 걸으며 “소학생”을 펴고 읽는 학생이 있다. 한 말 동안이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터이라, 한시라도 빨리 읽고싶은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참고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으시라. 길을 걸으며 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복잡할 거리에서 꼭 위험한 노릇이다. 그리고 집에서 읽는 것도, 빨리 읽어 버렸다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 말고, 천천히 읽을 것이며, 유익하고 재미 있는 글은, 두근두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으시기 바란다.

★다음 달치 (11월치)에는, 지난 5월에 아현에서 모집했던 상타기 작문과 동요에 뽑힌 작품을, 하나도 배놓지 않고 죄다 실거로 했으니, 손꼽아 기다리시라. (심은경)

1948年 10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90 원
 10 월치 ★ 제 61호
 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主幹
 發行所 兒 館
 1947年 3月 30日 登錄 第249號
 서울 鐘路 2街 永保堂
 電話【光】 3370番・3492番
 總發賣 乙酉文化社
 賣店 * 文章閣 * 鐘路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1947年 9月 31日 登錄 第14號

기차길 옆

尹石重 謠
尹克榮 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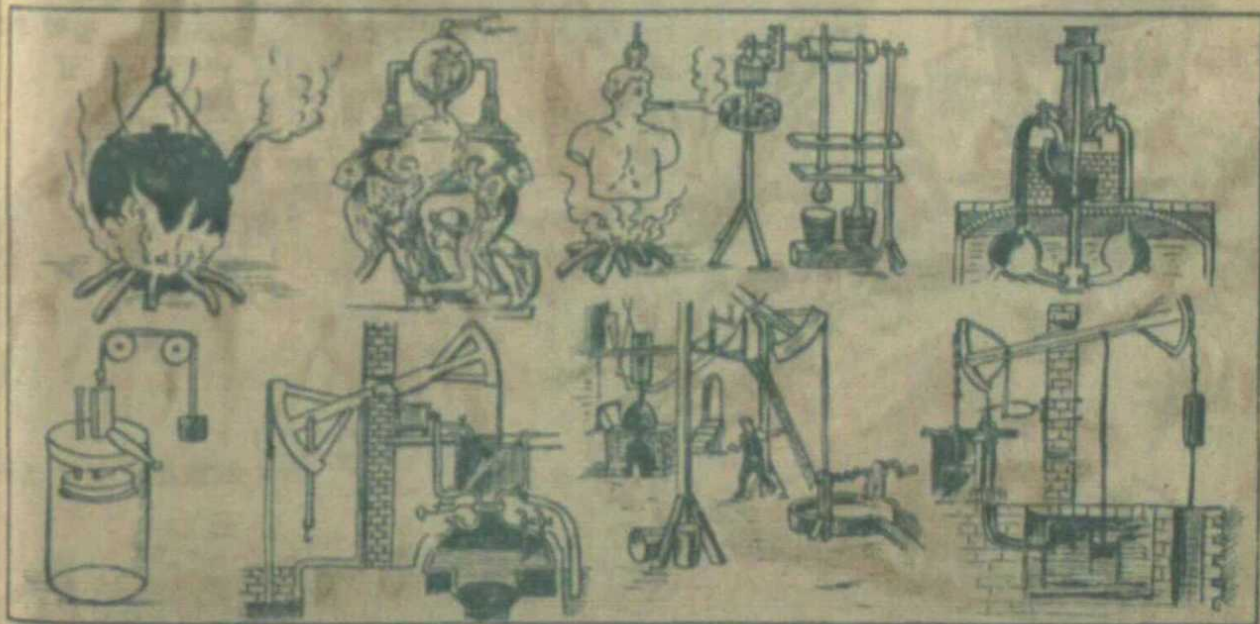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칩 칩
기차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칩
기차소리 기차소리



오 산 해 도 야 기 아 기 잘 도 잔 다
오 산 해 도 옥 수 수 는 잘 도 큰 다



증기기관 (蒸氣引擎)

① 오랜 옛날부터 증기가 발전
을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
은 발전했을 것이다. ②기원전
20년, 데질드의 철학사 책에
가 증기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설명했고, ③그 후, 1
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1
799년, 이태리의 부란카아 마



는 책상이 연구결과를 기재를 발
명했다. ④1666년 영국의 에
드워드·브라운이 발명한 기
관, ⑤1680년, 플랑서의 데
너이·파파안이, 자동적(自動的)
으로 열리고 닫히는 마저를 발명
했고, ⑥그보다도 더 높은 기

관, 영국의 대장장이 토머스·
뉴코먼이 발명했다. ⑦171
3년, 한푸레이·보라아라는 소
년이, 자동적으로 마저를 연고
하게 연구하여, 그때까지의 마저
마모를 없애고, ⑧그 후, 훌륭한
기관을 증기·왕자가 발명했다.
⑨이로부터 순부시제 발달되어,
영국의 찰스·아무자아논이 마저
철기(鐵)를 발명하는 등, 모두에
은 이익을 가져왔다.

그림 백과 사전

④ 세계 각국의 집

(설명 39 페이지에) 17 개



중부 구마파의 집



지엠티의 궁전



몽고의 털담요집



서서의 수혈장

중부 구마파
지루서이의 마차집

아제아 유목민
(遊牧民)의 텐트집



북미
절벽 위
집

북부 아메리카
개척민(開拓民)들의 진영

나무 위에 건
취향집의 집



하와이 불순집

북지나의 벵글집



뉴·피부의
페스의 방목집

오스트레리아의 숲으로 만든 집

뉴유·카피도니아의
백나무집

스마트라의 집